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產業政策의惡用되는一面
—端川鹽鹹販賣上의紛糾—

一

朝鮮의產業政策에 關하야吾人은各方面으로부터 許說한바적지안하엿섯다 그의原理論的見地에잇서서 產業의發展을計劃하는政策에對하야는 누구나不可라할 理由가업는바어니와現下의產業第一主義의 名目下에進行되는 政策은 그案出의主要動機가 日本의食糧補充을爲한產米增殖策에因함이오 그運用의實際에잇서서도또한大體로서日本人本位의偏頗한傾向을보이는바이니 이는全朝鮮白衣大衆의生存의前途를爲하야 吾人이항상指彈또批判하야말지안는바어니와 이產業政策의一重要科目인鹽業奬勵策과 그中에도最近一般物議의焦點이되는鹽鹹共同販賣에關한 各種不正事件에對하야 吾人은이제다시一言치아니치못할바가잇다

二

鹽鹹共同販賣에關하야 일즉紛糾를極한各種의問題가突發하엿스니 京畿道를비롯한數個地方에서 그의共同販賣人許可에關한 朝日人의差別問題와 平南各郡을비롯하야 外他各地方까지 同一한共同販賣에關한等級의不公平과 斗量의不純正과밋關係吏員들의不親切또는不法的行爲로因하야 자못全國的으로尋常치아니한民怨을激發한바는 現朝鮮의官民을勿論하고一般으로認知하는바事實이다 그런나이제咸南端川郡에서共同販賣의規定에關聯하야 鹽鹹生產者들을處罰한問題는 매우重要한地方行政上의過失로서 一般鹽鹹生產者에對한 威脅일뿐아니라 因하야는그것이 곳朝鮮人의 貧窮한生活로 一層그前途를不安케하는浮動的의疑懼心을주는바이니 吾人은特히關係當局에게 이一言을致하는바이다

三

當局의如何한方策을勿論하고朝鮮產業狀態의 實際에잇서서米穀이그의大宗이오 鹽業이또한重要한物產이되는바이니 鹽業에關한 當該官廳밋그關係者의態度는매우周到丁寧하야一般生產者에게充分한便宜밋信賴를줌을要하는바이다 일이이에背馳되어 그의生產者의利益을 破壞하고 어떠한一部特權部類의利益을 不當히助長할진대 그는자못本末顚倒의一大失策일뿐아니라 吾人으로서容許치못할故意의罪惡임을斷言하는바이다

四

端川의鹽鹹生產者가『야마주』會社라稱하는日本人商會에對하야 그等級의不公平과斗量의不純正等으로因하야 자못嫌惡하는바만커늘 當該郡當局에依하야支配되는郡農會에서는이人民의意思를全然無視하고 突然同會社와 共同買賣의契約을締結한것이 이미一失策이오 貧窮한人民이 一日의收入이잇스면곳一日의需用을要하거늘 다만勤儉貯蓄의抽象的인論議에얽매어 鹽鹹代金의一割을强制로貯金케하엿스니 그盲目的의鹽鹹가자못過當한바이다 하물며共同販賣의期間이지난後 人民에게明白한告示도업시그販賣期間을延長하고『야마주』會社의使用人인것을憑藉하는山本이란者가郡當局과의協議한結果自由賣買의承諾을어덧다는口實로써一般生產者를對手로서 鹽鹹의買入을斷行하엿거늘 郡當局은이러한 前後의事情을不顧하고다만生產者인販賣者諸人에게一律로科料에處하엿스니 그외主動的인責任者인山本과밋日本人會社에對하야는 何等의處分가업스니 이는매우不合理한偏僻된處置라고아니할수업다

五

端川郡當局의處置가 朝鮮鹽業令第十六條同第十七條의規定에依하야發布된 鹽鹹販賣에關한咸南道令에 準한바어니와이도록苛酷한處置는 他道에서그例를못보는者이오 同道인永興郡에서는 鹽札의所有者에게는一般으로自由販賣를許하는等例가잇슴에不計하고 이러한不合理한處置가잇슴은뿐아니라 或五六十里以外의居住하는長期多忙한人民에게 이로因하야郡廳所在地에呼出되어數三日式逗留케하야엇지發餉하는바 업스니이는비록同情밋誠意가缺如한朝鮮의行政當路들이나 자못그太甚함을憤慨하지아닐수업는바이다 端川의人民이 일즉이에憤慨한바잇서 市民大會를열고그의自衛策을講究한바잇섯거날 郡當局은다만模糊한 答辯을하고畢竟容易지아니한失策을 繼續하니 이는다만一端川의鹽鹹生產者를爲함만이아니라 全朝鮮人의財產權을爲하야 當該責任者와밋監督의地位에잇는 關係當局의正當한處置를 促하는바이다

第六回聯盟總會
主要議題는議定書再考

(巴里三十日發) 近日『제너바』에開會될第六回國際聯盟總會의主要한것은昨年議定書를再考함일이리라大藍若議定書는聯盟執行委員會에代表者를出한各國多數의批准을要求할수업섯슴으로再次本年總會에附議하게될터이오近者또다른議定書를起草할運動이이러나는듯하다 即新議定書는强制的仲裁와英、佛、獨間에締結이議論이잇는條約의範圍內의制裁를用하기로한이니即總關係列國에서承認할수잇는것이다그러나右三國條約은아즉起草되지아니하야第六回總會에不及될으로日中에大要特別總會를開하고此를附議하게것고右總會에서獨逸의聯盟參加도審議될터인대英外相『쳄바렌』氏와佛外相『브리안』氏間은聯盟總會의諒解가成立되엿더라

露帝政派의再蠢動
九月末巴里에서大會開催

(巴里電) 露國帝政派의移住民이그各派로부터代表를選出하야九月三十日을期하야主要한會議를開催하라고其準備를進行하는中인대此는『露國海外移住民會議』라稱하고二十名의委員을命할터이라는바其計劃은爲主히勞農露國에對하야共同策戰을하라는것으로一名의黨首를選하야此人이反勞農運動의總大將이되게할지오一方白露側에서는勞農政府에反對運動을이르킬듯하다、

그래서露者『우랑겔』、『쿠테지크』等의遠征軍其他白軍側의運動이其基礎를그릇하야 곳失敗에歸한것에鑑하야엔精神等은其前轍을踏지아니하라努力、計劃하는中이다

目下白軍의帝政派分子中에는스스로『全露國의皇帝』이라稱하는『키리니』大公에從하는者와前帝政派露國의大元帥이던『니코라스』大公에屬한者의二派에分하얏고其他分子라云하는者는『셜조아』인共和派、民主派로成한것이니此는帝政의復活에는全然反對로서今回의會合도帝政運動의一環이라하야露國의移民은常政下에다시드러가는이보다는勞農政治를歡迎하는意向이즉『크라신』氏以下巴里에잇는勞農政府代表者等移住民의計劃에도直接[illegible]지아니한彼等은妥協하기는到底히希望할수업스즉結束이니統一이니云云은畢竟不可能하리라觀測하는中이더라

米、墨 移民問題討究

(華盛頓二十七日發) 米國、墨西哥兩國勞働團體의首領等은華盛頓에서米國勞働總同盟本部에會合하야米墨兩國移民問題의解決에關하야左의二點을研究中이더라

一、米墨兩國政府에對하야兩國二大勞働團體의援助를受할事를勸告할事

二、兩國勞働團體는勞働協定을締結하야各自國人의移住를制限할事

波蘭人七名銃殺
曩者露主義者死刑復讐

(나우엔三十一日發) 過般露波國境에서이러난騷擾에依하야逮捕된七名의波蘭人은맛스크우에서銃殺되얏는데右는曩者三名의露國共產主義者에게波蘭政府가死刑을宣告한것에對한復讐이라더라

反共產派首領
胡漢民氏—罪狀을審判키로
◇但胡氏는拘引中逃走햇다

(香港二十八日發) 廣東政府의共產非共產兩派의軋轢이爆發되야胡漢民、王兆銘、鄒魯氏等은魏邦平、梁鴻楷氏等과結托하야共產派를擊滅코자하엿스나蔣介石氏는許崇智其他軍人派와結托하야反蔣派를一網打盡코자二十四日夜스스로衛戍總司令에就任하고二十五日未明에突然히學生軍을胡漢民氏邸에派遣하야胡漢民氏를捕捉하야軍艦으로黃浦軍官學校에押送監禁하고梁鴻楷氏는亞洲酒店에서逮捕하고魏邦平氏도捕捉되엿섯스나釋放되야江門으로逃避하엿스며胡氏兄弟도逃亡하엿는데蔣介石氏는特別法廷을開하고胡氏의反革命의罪狀을審判할터이더라

◇胡漢民氏

共產非共產
‖人物色別

共產黨의頭目廖仲愷의暗殺은繼會로한廣東政府의內訌은遂히表面에現하야共產派는非共產派를壓倒코자한다그러나共產派非共產派라하지만嚴密한意味로의主義上의相爭이아니오寧히孫文氏沒落後首領間의個人的感情問題로因함이多하고特히廖仲愷、胡漢民의兩頭目과如한은政敵關係가甚하야多難한廣東政府의對北京對外國關係와五相關聯하야複雜한合從連衡이內部에行한結果인것갓고元來胡漢民氏는汪兆銘廖仲愷兩氏의過激一派와反目의傾向이잇섯슴으로共產派非共產派의對立이라는것보다도妥協派非妥協派다는便이適當할것이다左近人物의色別로보면

▲共產派 汪兆銘、廖仲愷、于樹德、陳秋霖、蔣介石

▲非共產派 孫科、林森、譚延闓、胡漢民、許崇智、吳鐵城、魏邦平、李福林

就中今回共產派의武力行動을決行하게한蔣介石氏는赤軍式教育을施한黃浦軍官學校長으로學生軍數隊三千八을率하얏슴으로또許崇智將軍은元來非共產派에近하나今回의事件에는共產派와行動을가티한것으로보면胡漢民氏에對한感情의結果라고觀測되더라

吳佩孚氏
洛陽還歸乎

(漢口二十七日發) 前河南督軍蕭耀南氏는昨日秘密히忻州에갓는대右는河南督辦岳維峻氏와鐵衛中인吳佩孚氏의洛陽還歸에對한諒解를得하기爲함이라는說이잇더라

中政府의對日抗議
滿鐵沿岸郵便을撤廢하라
이는外國郵便規則에違反이다

(北京二十九日發) 中國政府는二十八日日本公使館에對하야如左한抗議를提出하얏더라 華府會議의結果中國에在한外國郵便規則은모다撤廢되얏슴에不拘하고滿鐵沿線의日本郵便規則이依然撤廢되지안흔것은右國際規約에違反되는것임으로速히撤廢하기를望한다

陸軍總長
吳光新辭任
後任은盧永祥?

(北京三十日發) 陸軍總長吳光新氏는義者盧永祥氏의江蘇督辦辭職以來其職을盧氏에게讓할意가잇든바二十九日盧氏는正式으로江蘇督辦의職이解除되얏슴으로同夜直히段執政을訪問하고辭職을申請함과同時에後任으로盧氏를推薦하엿는데段執政도特別한障害가無한限에는盧氏를陸軍總長으로今週中에任命하기로되얏더라

北京大學
獨立을主張
全敎授大會에서

(北京二十八日發) 女子師範大學의騷動으로敎育界에異常한風波를이르켜北京大學은獨立을主張하야二十八日全敎授의大會를開하고席上胡適氏一派의獨立을否認하는穩健派와絕對獨立을主張하는李石曾一派의急進派間에甚한論爭이잇섯스나結局何等決定이업고如斯한以上은校長蔡元培氏의裁決을기다릴수밧게업다하야敎授會는有耶無耶間에終了되엿더라

澁谷中佐一行
國外로放逐
이미哈爾賓에到着

(哈爾賓三十日發) 軍事探偵의嫌疑로曩者『일쿠쓰크』에서莫斯科에逐致하야拘留五十三日로하고去十八日國外追放의處分을受하고十九日莫斯科를出發한澁谷少佐及中井某兩氏는二十九日哈爾賓에到着하얏더라

滿鐵社員捕縛은
事實로判明
蒙古赤軍에게

(大連二十九日發) 滿鐵의調查隊外內蒙古林西附近에서蒙古赤衛軍에게 捕縛되야 庫倫으로押送된 事件에關하야 大連滿鐵調查隊에서는 八方으로 손을내여其眞相을 探知하며 一方外務省에는至今까지의經過를報告하엿는데同調查隊의一行은十八名으로蒙古接壤地方의地質이며其他學術調查를하기爲하야奉天省及海拉政廳의旅券을所持하고六月十九日에林西에서傳書館에附託하야『一同無事、遂히外蒙古를向하야出發한다』하는消息이잇슬뿐이오其後는全혀不明이든바今回一行이蒙古赤衛軍에게捕縛되야庫倫으로護送되는途中其事를『유쿠집』回敎徒에게附托한消息이滿鐵本社에傳來한터이오또『유쿠질』은林西의西方千四百中里의地點에잇서全혀通信의方途가업슴으로眞相의判明되기까지는相當한時日을要할豫想이더라

太平洋會議雜觀(三)
七月十三日 布哇에서 金良洙

要컨대日本代表者의提案한五個條原則의精神이라는것은 人種과國籍의如何로써 偏頗한差別待遇를敢行하는것에對하야極力非難한것이니 所謂 一等國의하나이라는日本의處地로잇서의米國의排日法案은 다시업는一大의侮辱인것이事實이외다 따라서日本이米國에力爭함이 한方面으로는 經濟的理由도잇겟지요마는 또한方面으로는차라리體面의損傷이 더욱重大한問題인가합니다

以上은日本代表者의 移民制限에對한不平을具體的으로表示한一端에不過하거니와 다시한거름나아가이미外國에移住하야잇는 移住民의待遇에對하야 또五個條의希望을말한것이잇슴니다 이제煩瑣하나마그것을여긔에列擧하면

第一 移民이엇더한國家에移住함에當하야는 移住民은先住者와同等의 平等的待遇(經濟的及社會的)를밧게할것

第二 移民은同一程度의賃金을바둘것이나그러치아니하고는勞動市場의攪亂을免치못할것이오

第三 移民은移住國의勞働條件의設定과 維持에協力할을許可할것

第四 經濟的및社會的의 公平한待遇를밧는代價로 移民은될수잇는데까지急速하게 移住國의一般生活情況에同化하여야할것

第五 萬一移住民으로서 一時的滯在를意味함이아니라고 永住의目的을有할진대 移民은移住國의政治에干涉할수잇는 一定한市民權을容易히獲得케할것

等 以上五個條項임니다

어떠튼너무나漠遇하나마 日本代表者들의主張한一端을 여긔서紹介한것은 今番會議의中心問題가 日本對列國間의移民問題인것과 또四面楚歌中에잇는 오늘날日本이 어떠케自方으로列國의排日感情을 多少라도緩和코자하는데熙慮하는것을 다시한번參考에供한것에不過하오이다

그런데米國과밋英國의各自治領에서 日本代表者의이러한要求와陳述에對하야어떠한態度를가지고잇느냐하는것은 자못興味잇는問題어니와그大體의見解를우리의推測으로는分判하면

조금寬厚한論者는말하되「우리는果然너히의말과가티 大端遺感된일을하얏다 그러나一般多大數의國民이 要求하는것이니이것을一二個人의努力이나言論으로 卒然左右할수업는일이다그런으로次次時日의進行을따라公正한輿論을喚起하는수밧게업다」 하는것이외다 그러나이러한論者라도 自己가 自覺하야엇더한勢力을하야보라라는거진말이라도 一片口頭의保障조차업는것은 우리가여긔에注目할事實인가합니다

그러나이와가튼論者는 오히려溫和한便이지오 米國사람이나英國사람의 多大數主張을가지고보면 異民族과異民族과의根本的으른差異라는 生理上或은精神上의差異를論據로하야 到底히一朝一夕에同化할수업는것을指摘하면서 적어도素質이劣等한移住民의强制的入國은先住한優越種民族의 自衛上으로보아不可不어느程度까지 制限치아니할수업다는것을主張함니다 勿論이와가튼主張을陳述하는데에는 日本사람의 體面을보아多少婉曲한語調로 民族的優越을暗示하는사람도잇거니와 그러치안코바로正面으로내려바수는사람도업지안슴니다 엇더튼커히들의詳細한主張은大槪이러합니다

『그것이올튼지 그르든지間에 左右間우리는우리의할바로하얏다 그러면너히는將次우리에게엇지할터이냐』하는가장率直한最後通牒임니다

大槪會議席上의空氣가이러함으로 日本代表者가提案한바以上의所謂移民政策의『黃金律』이라는것도 餘地가업시埋葬되고야말것이니 今後日本代表者들의 善後對策이可觀입니다

그러면中國代表者들의 態度는엇던條件을如何하나하면 勿論日本사람들의移民問題에對한態度와는 多少의差異가잇다할지라도 이것도要컨대程度의差異에不過합니다

다시말하면中國代表者들의 要求하는바는治外法權의撤廢이며關稅의自主라든지 或은現在의不平等한軍閥政治者流에게 懸用되는借款問題의制限가튼 여러가지問題에對하야서는 衷心으로同情치아니함은아니나 現在와가티軍閥이雷亂하야 何等의統一이업는中國內部의狀態로잇서서는 들오히目下의急務가 內部의整頓에잇다는것을 千編一律的으로主張할뿐이외다

以上과가티列國이中國에對한論旨가 正當하든지或은그러치아니하든지 이것은여긔서 分辨할바아니어니와 要컨대이會議에서中國의問題는 日本의移民問題에比하야 重要視한位置에잇지안한것은事實입니다 卽中國問題는 日本의移民問題를論하는데에 實質的으로따라가는客體에不過합니다 多少의興味를集中하는點이잇다하면도리여列國이中國問題에 對하야 中國代表者들이提案한以上의諸要求가아니요 列國이中國을向하야要求하는 中國의產業化問題와 中國富源의開發問題입니다 이만하면今番米國이이會議를엇더한動機로 開催하얏는지 大綱짐작할듯하오이다 다시말하면今番에開催된이太平洋會議로말하면 米國의日本에對한 一種의偵察이라하야도過言이아니외다 다만太平洋沿岸의모든民族을 日本과가티를르게된것은 이것이寒實이아니면 日本에對한牽制策이아닐가요? 따라서우리의立場드어긔서率直하게생각하면 米國의一傀儡에利用되는 嫌疑도업지아니하오리다

根本부터排斥가이러한太平洋會議에 우리의立場이야말로 다시問題될餘地도업겟지오마는雪上의加霜으로 日本側代表者들이 眼上의瘤와가티우리를猜忌視함이라 우리는自然히兩間之木이 아니될수업는處地에잇슴니다 그러함으로會議가開催되든 第一日의勞頭부터 이곳에잇는日本文의新聞紙를通하야 우리에게얼마나한挑戰과中傷을試하얏는지는 참으로思有過半의感이잇습니다 첫재申興雨氏가우리一同을가름하야 大會席上에서陳述한우리의聲明에對하야 列國의代表者들이 다異口同聲的으로그凱切한것을稱讚치안함이업섯는데 오즉日本代表者들은 돌이어이것을 朝鮮사람으로서는敢히하지못할말을하얏다는거와가티興奮된것은 一方으로생각하면 자못憫笑할事實이외다 勿論徐博士의칼날과가튼一喝의質問이잇서 日本代表者中에語窮理屈하야 마참내狼頭鼠竄의失敗的醜態이엿든것은 아니나그러타고 곳이것을一蹴에反드시報復的反噬을한다는것은 너무나島國根性의狹隘한態度인가합니다 이리하야우리는 事實上으로筷口舌을當하게되엇나이다 米國사람의態度를가지고말하더라도 內心은如何하얏든지 表面으로는主催者側의責任感으로그리하얏든지 日本代表者들의脫退나아니할가하는마음에 [illegible]兢兢한모양임으로 따라서우리에게對한視線도自然冷靜하며 또우리를아조떡정떼로아는것갓습되다 (七月十三日旧新臨刻에)

政本合同
畢竟實現?
憲政도對策決定

(東京電) 政本合同運動은鬼火와如히政界에明滅하야或은絕望할과如히或은近成功될것과가티報하는데何如間憲政會方面에서는此에對하야深甚한注意를拂하는터로今에幹部의意嚮을綜合하면如左하더라

本黨의最高幹部는中橋氏를除한外에大體合同反對이나中幹部는熱心으로 合同運動에 共鳴하야多數는合同論者이오其外에는合同한結果解黨될것을恐하야此에反對하는者도不少하나地方의地盤은大體合同을希望하야이미少하고特히政友會의勢力이全國에亘하야普遍的으로鞏固하니此를[illegible]수업슴으로結局은合同을不好하는者가多少잇슬지라도兩派의合同은自然的으로成立을見할에至하리라云云

土地增價稅案
政府方針決定

(東京電) 懸案多年의懸案이든土地增價稅問題는昨年十一月內務、大藏省의意見이一致되야곳成案을得하야此를法制局에廻附하엿스나同問題에關하야는當初政府는地方公共團體의負擔及公布를期하려는見地로부터期於히此를實施하려는決意이엇스나其後各方面의有力者가猛烈히反對함에鑑하야政府는其反對를抑壓하면서까지當初의方針을實施코자하엿스나政府는各種問題에不利한處地에서게되야其影響이甚大하겟슴으로該案은法制局에廻附한대로問題의進捗을暫時中止하고그대로잇든바今回稅制整理方針이閣議에決定되엿스나此以上은土地增價稅는此를將來에保留하고全然觸手치아니하기로政府主腦의方針이確定되엿다此로因하야大阪京都等은多額의增加를都市計劃案에計入하엿스나遂히畵中之餠에歸하고말엇더라

新舊龍山 低地排水問題와
京城府의新計劃

新舊龍山의防水는既히總督府의設計한바有하야漢江旭川의堤防은全部總督府의手로復舊又는改修하기로되얏는데京城府는此에對하야新舊龍山의高地排水에就하야設計를終하고總督府에提示하얏는데該案에依하면舊龍山方面의高地排水는今回洪水의經驗으로局部의改修를함에不過하나低地排水에는相當히考慮하야下水道路橋梁等에亘한秩序를整備할것으로即低地排水로는現在元町三丁目에잇는堤防側의溜池에口徑四十吋의뽐프를置하고排水作業을하야此에依하야舊龍山의

低地排水 畫完成케하고

更히新舊龍山方面은될수잇는限에서漢江과旭川에勝水하야第一洪水로兩川의水位가高케된結果此方面에流入치못하게될境遇에는鐵道溝內即瓦斯『탱크』附近低地에勝水하야此亦『뽐프』로써排水에努力할計劃인데此豫算이約六十餘萬圓에達하야全部國庫補助를申請함과如하고此에對하야總督府는其中에數項을國費負擔으로하야總督府의手에依하야改修하고殘分은更히査定한後豫算을削減하야約半額인三十萬圓內外로할模樣이나全然國庫補助의希望은容認되지못하고大體로半額은[illegible]府로서는其半額의支出에依하야京城府는根本方針에依치안흐면안되리라더라

商業親睦會
三大事項決議

八月二十八日午後八時부터群山商業親睦會에서는同會館에서定期總會를李根三氏司會下에左와如히進行하얏더라

會長李根三 副會長金琓培 總務尹鳳日 社交部長金洪內 經理部長金丸京 書記李學秀 評議員尹顯昌外九人

一、會務進行에關한件

會員은每月三十錢式과每日一錢式義捐募集하야基本金으로할것

一、우리商業者에關한件

五相親睦을圖키爲하야商品을共同購入에關實施할것

二、會員間貸借에關한件

會員中에失敗되는者에게는會員은積極的으로救濟할것

一、其他(群山)

土地增價稅案 …

平原에서 募集한救濟金
水害救濟會로送付

平南平原郡廳에서는金鮮水害罹災民을爲하야水害救濟金을各官公署로부터募集하야總額九百二十三圓五十錢을朝鮮水害救濟事務所로보내엿다더라(平壤)

知道面災民은 自面에서救濟

高陽郡知道面은水害로因하야家屋流失이百餘戶에達하엿는데面民有志의義捐으로糧穀을買得하야應急에供하엿더라(高陽)

殖銀常任監查制
實施可否研究中

殖銀常任監查制의設置問題는過般開催된通常株主總會席上에서重役間에研究協議한後次期總會에報告하기로하얏는데如斯한株主代表機關設置問題의研究를單獨重役側에만委하고直接利害關係가잇는株主는情然不顧함은頗히遺憾의事이라하야一部株主間에서는互相連絡하야研究調査를하라고目下計劃中이라더라

出入記者人選問題
釜山府廳出入의

釜山記者團은府協議會席上에서府廳出入記者의人選問題로案出한小原爲氏와二十九日午前九時釜山鐵道『호텔』에서會見하고小原氏의或意가잇는바를듯고小原氏도記者團을指摘치아니하고虛報를傳한某紙를指摘하는意味인事를表明하는자리記者團도此를諒解하고問題는記者團과全然分離하야小原氏對某社의問題가되얏다더라

兩普校增築落札

二十七日金泉郡廳에서請負競爭入札에附하얏던開寧、果谷兩公立普通學校增築工事는金泉에서四名大邱、京城等地에서十名都合十四名의入札者가잇던바開寧校는最高四千九百圓、最低三千五百四十五圓으로落札되지못하고結局最低三千四百四十五圓으로隨意契約하게되고、果谷校는三千二百八十五圓(最高四千七百圓)으로落札되얏바竣功은十月末頃이라더라(金泉)

茁、扶兩軍競技
勝利는扶安軍

既報‖茁浦에서開催한南鮮蹴球大會에參加키爲하야出發한扶安少年軍和友團一行은八月二十五日午後五時에茁浦에到着한바晚時의款으로退場케되야主催側에서는此를遺憾으로생각하야翌日午後에同大會의解散을宣言한後即時茁浦扶安軍의蹴球試合이有하야勝利는扶安和友團으로歸한바會長尹蓮馨氏의優勝旗授與式이終了하고扶安軍은凱旋하엿다더라(茁浦)

聞慶郡犯罪事件

聞慶警察署의今年四月一日부터七月末日까지의犯罪事件은左와如하더라

罪名	發見數	被捕數
一、放火	二	二
一、失火	一三	一三
一、殺人	一	一
一、竊盜	五三	三一
一、强盜	七	七
一、强姦	二	二
一、文書僞造	一〇	一〇
一、恐喝	四	四
一、橫領	二八	二八
一、詐欺	三〇	三〇
一、傷害	四六	四六
一、賭博	一九	一九
一、其他	四九	四九

(尙州)

水災義捐金
조선수헤리재 구제회에온것

(光化門通支局)
金一圓式 梁在潤 金周榮 金五十錢式 徐興福 鄭南植 李熙翊 大角幸吉 李致英 金道榮 李敬子 劉承洙 池上元子 河駿鎬 孫壽行 朴海榮 安容植 安秉煥 鄭熙 殷璟國 金八十錢田榮楠 外一名 金四十五圓四十九錢職員一同 釜山日報支社北市喜多壽

(商業銀行本支店職員)
金八圓四十錢 池田庄五郎 金七圓式 酒井定 堀正一 金六圓三十錢式 鵜谷源三郎 佐藤恒太郎 金六圓 源光一 金四圓八十錢 藤原吉久 金四圓二十錢 勝田武金 四圓十五錢 吉川博 金二圓七十錢 田中與吉 金二圓二十錢 大橋小左衞門 金二圓十五錢 齋藤端 金二圓 朴元用 金一圓八十錢 荒木茂 金一圓七十錢 吉村三郎 金一圓六十錢 山下信一 金一圓五十六錢李源叙 金一圓五十五錢 田川應祐 金一圓五十錢式 鎌田政英 川井晋一 石原惣介 金一圓四十四錢 原田政治 金一圓四十錢式 長谷尾哲次郎 安部五六 金一圓三十五錢式 中村次吹 島谷孝平 李璟榮 金一圓三十一錢李熙弘 金一圓二十六錢杉岡具雄 金一圓二十五錢李祺達 金一圓二十錢式宋元燮 姉川秀治 長尾篤 金一圓十五錢塚原信一 金一圓十錢式朴炳軫 常政義雄 稅所正幸 金一圓式內田次男 藤原淸次郎 江本久雄 竹內濱次郎 金九十六錢高橋邦夫 金九十五錢東谷嘉太郎 金九十四錢趙漢福 金九十錢式 朴世榮 金世鉉 小田友五郎 原一之 金八十五錢 中西豐一 金八十二錢申鳳均 金八十錢式丹羽亨지子 朴鏞元 大口文雄 金七十五錢式櫻井三郎 小島末吉 金七十四錢 橫川鶴吉 金七十三錢洪承彥 金七十錢式富永二一郎 金六十一錢式高橋荻柳 藤田豐作 金六十錢式山脇十郎 田川기미 土橋淸子 金五十七錢梁景欽 金五十五錢知覽京미 金五十錢式尾崎民一 全碩鎬 加藤寅男 金四圓三十七錢谷口石松外十五名 金五十圓京都大宮頭二階町西法寺京都佛教護國團
計金八百二十九圓四十六錢
累計金十四萬四千二百五十三圓八十錢

金五百圓大阪堂島米穀取引所理事長林市藏 金五百圓同取引員組合委員長須須木庄平 金三圓江原道高城郡梧盛面李箕城

(本町二丁目)
金二百圓梶原末太郎 金百圓式釘本藤次郎 松本卯市 熊平商店 篠崎半造 森啓助 信澤完吉 山本正三 田中友吉 浦尾旅館 逝辰馬 三田政次郎 金五十圓式 增田三穗 淺海助太郎 木下嘉助 宮川天吉 前田合名會社 釘本藥器部 金四十圓 村木正藏 金三十五圓日韓書房 金三十圓式田中三郎 尾崎勝三郎 堀內滿輔 海市商會 大綱直之 西川政七 古城龜之助 藤田米三郎 橋本기미 金二十圓式 川井昌一 山口樂器店 池田長兵衛 漢城銀行本町支店 椎木五郎 森政吉 安原藥舖所 小守七藏 商業銀行本町支店 金十五圓式 村上天眞堂 高田九一 鈴木茂 木島寬作 北村隆之助 增田利作 富田出張店 大正信託社 パイン商行 神吉長作 山根쓰네 北村善太郎 柳田文次郎 久保田眞造 北川彥太衞門 江頭運平 吉田親一 富士屋 岩本庄吉 渡邊本 玉喜 大橋寅吉 德律末鍾 原田彰一 白川商行支店 岩田酒店 野田商店 朝鮮館 森田久三郎 大塚三四 永井新之助 岩見硝子店 三浦伊三郎 北島藥店 大塚伊三郎 平戶支店 小野德藏 日田商市 江波宅治 岩田虎吉 池尾好太郎 婦人一錢起業株式會社 入木捕十郎 小島庄太郎 金七圓式奧村松之助 高松愛次郎 石津伊新 青青園 ニコニヤ 巴商子店 金五圓式古川寥三 伊藤組 杉野直三郎 木佐新藏 服崎小平 松浦勇次郎 一番ケ瀨闘次郎 天野屋旅行具店 船崎外 松堂酒村 高部密治店 伊藤秋藏 大阪土產店 豊岡川合吉太郎 야부소바 中村久十郎 福田嘉一郎 友谷啄一 金出滿次郎 金子源吉 大屋洋服店 蘇野 化本兵一 小林樹次郎 種田暉 富士屋 金廣部竹下賢三郎 大塚金治 카페ー기린 山本酒店 高井貞信 旭屋메리야쓰店 小野又四郎 井上商店 中尾菊太郎 金四圓矢野福造 金三圓式 山田武一郎 枝川洋家具店 阪田類次郎 池邊政市 立花하쓰 伊藤東作 高田强三 星野三平 河村久登 大西張作 荒木啓三郎 神本長 澤珍太郎 辻俊次郎 友田大吉 物部强介 石井與一 井上宗次郎 福原帽子店 東京堂書店 篠川卯三郎 阿川履物店 佐伯支店 崎山메리야쓰店 長枝淸信 金二圓式 岩井貢藏 森田平太郎 松岡瀨次郎 山田恒太郎 中川吉五郎 三矢食堂 角田梅 大西貫一 士井衆次郎 中川宗平 다루堂 北陸物產 木村理髮店 橘屋 中村花園愛生堂 天賞生 宮川ーマン商會 屋敷고도 大山秋本三之丞 永田正 友井福三 上田助次郎 城合洋服店 壽軒 玉屋支店 平井提燈店 網島藤市 齋藤節 武田大正堂 松浦作二 山田萬作 綱島久藏 四官蟻 近江屋 金一圓式山本 玉喜內사도 玉喜內기요 黑宮精造 岡部忠兵衞 大町寫眞館 米田友吉 明利堂 福順興 藤平 遠島由松 小原가쓰 畑기사 中谷虎吉 佐久間新治 渡邊荒吉 江島도시 池永喜間平 山內德八郎 井無田春楨 金五十錢式 松崎長次 太田寅之助 神垣茂吉 守部榮
計金三千九百九十圓
累計金十四萬八千二百五十三圓八十錢

(都染洞、積善洞)
金五圓式李載俊 李種甲 裵鍾浩 金三圓式金在鶴 朱寅植 柳錫鳳 金二圓式吳榮會 李慶世 柳錫圓式朴燾 宋淳弼 朴啓銷 金一倫求 金仁圭 趙春九 金允敬 金玄良弼 徐德在 俞鏞德 崔硏鉉 愼玉晟 高泰胤 閔鼎基 白樂璿 崔萬植 崔淳永 朴聖喜 朴昇熙 朱德淳 徐光卨 曹德承 宋鍾五 宋鍾憲 文昌圓 崔斗漢 洪鍾捐 劉時馳 金在文 尹鼎夏 安滴植 徐敬德 愿仲模 李範泰 朱應暾 李晉鍾 申應熙 林俊鎏 張德鎬 尹茂榮 李鵬周 金五十錢式尹良燮 姜宗煥 沈景淳 朴雨楨 金興完 張昇煥 韓馥甲 劉琪鍾 李健宙 金敎卿 尹完善 趙松濟 朴泳明 文重敎 張鳳熹 [illegible] 金昌鉉 [illegible] 元鍾根 [illegible] 李昌浩 安鍾悳 [illegible] 金恒默 安在鎬 張樂宰 [illegible] 韓基岳 金七十錢金榮達外一名

(高等法院)
金五十圓式植田五郎 中村竹藏 金三十圓齋藤庄三郎 金二十五圓式塚原友太郎 小川衛 金十五圓式原正鼎 金十三圓式伊東淳吉 河村勝水 府永正一 金十圓式多田京圖 野村眞太郎 高瀨兵一 森田秀雄 金六圓[illegible] 金五圓式久永次郎 金二圓五十錢式 上田實 金二圓式 川崎[illegible] 殿村實 土田春松 金一圓五十錢福本陣 金一圓式李顯英 [illegible]田守

(京城法學專門學校)
金十圓式西條[illegible] 吳泰宇 [illegible]路英知 金五圓式 五十嵐[illegible] 坂巖遊 岡部政 [illegible] 寺川末治郎 金三圓 [illegible] 金二圓大谷任介 金一圓五十錢式 北島[illegible] [illegible]兵衛 金一圓式山本南次郎 三井義一

(朝鮮總督府[illegible])
金十圓森山秀雄 金二圓式[illegible]末平 長州三司 金一圓五十錢 玉置[illegible]二郎 金一圓 [illegible]田武治 金五十錢式 池田作太郎 明石松雄 高橋京已 [illegible]村[illegible] 大島留得 和泉[illegible] 金[illegible] 源次郎 內山辰己 金六十錢[illegible]外一名
金五圓 竹添町三丁目[illegible] 金六十五圓二十五錢[illegible]信徒婦人會 金二十圓[illegible]僧侶一同 金八十六圓三十錢[illegible]城參番一同 金三千[illegible] 金三十圓永樂町二丁目山[illegible]

(花園町)
金十五圓式[illegible] 宮本太助 蓧田卯三郎 南源兵衛 [illegible]四郎 日比善太郎 金十圓式小原新吉 山口[illegible] 矢部與太郎 金五圓式[illegible]四郎 吉武茂 [illegible]川原彌吉 山田喜太郎 中村[illegible]郎 太田馬九郎 金三圓式今林勝藏 川合雅之助 金二圓式本田仙吉 伊藤作太郎 三浦丈七 金一圓五十錢式[illegible]小平 宮[illegible]미야 松本仁助 木[illegible]新吉 金一圓式 坂越長之助 中島[illegible]郎 古市友男 前川吉之助 井元仲藏 佐中[illegible] [illegible]七 荒井七平 近藤途市 村瀨長大郎 中道勝平 長谷川[illegible] 川野미쓰 松田隆 山科初郎 狩野源二郎 內藤外太郎 大志[illegible]次郎 松本淺一 荒木熊野 太富菊藏 藤川與一 東野與倡 岡部總一 上田安太郎 武翻藏 福田鶴夫 前田嚴 大本祐丸 米良周一 柳田 荒木七郎 吉衆 近藤 大里 淸水 寶外里 高野店 金五十錢式 島田忠義 三村光平 坂野新六 本田喜八 藤田貞次郎

(京城醫學專門學校)
金十五圓式佐藤剛藏 稻本龜五郎 綿引朝光 金十圓式中西政周 大澤勝 金五圓式岸崎泰雄 眞能義彥 金一圓六十錢式志米天民 飯島滋次郎 平野勝文 金一圓三十六錢長谷井和 金八十五錢 朴昌熙

(安東縣運送同業者)
金五圓式內國通運株式會社 滿際運送株式會社 金四圓式高榮 金三圓式瀨船組 大正運輸公司 山形組 西村組 山大運輸明 北華運輸株式會社 松泉運送店 加藤組 新明公司 中村運送店 金二圓式 和田運送店 小村組 丸山組 足立回漕店 佐藤組 林森商會 片矢組 山下運送店 內岡組 柴田組 北京組 高倉組 願公司 金一圓式 今北組 長尾組 藤田組 太塚運送店 山二運送店 國際運輸公司 丸木運送店 信榮組 三成運送店 寳興司公司 東亞公司 高陽公司 滿公司 丸口運送店 永信昌運送部
金二十圓六十七錢南山町三쇠一二婦人手藝製作會代表大山여자子 金三百圓李鍝公殿下 金三百圓李堈公殿下 金五圓東京小石川區高[illegible]町五六村野萬治 金四十二圓六十錢昌德宮內內人金忠淑等五十八名
計金四千七百二十一圓六十三
累計金十五萬三千七百三十八圓四十三錢也

◇……이날이다! 재작년일본관동디방의대진재는!……◇

력사상에드믄대재변이며 우리에게잇지못할 인상을남긴 일본관동디방의 대디진은 복흥사업의진행됨을 딸어서 점점흔적을가리워가는 현상이로되 우리의인상은 오히려어제와가티 새로움을늣긴다 (사진은 동경상야부근의 복흥되여가는시가와 당시의본보호외)

『官憲密通者이니 死刑에處한다』

屋外로拉致하야當場銃殺

그집에불까지노하태이고 군자금을바다가지고되갓 江界立舘面에武裝團

지난이십칠일오전한시경에강계군립관면 텬산동최원태(江界郡立舘面天山洞崔元泰)의집에오명의 무장단이들어와서 권괴최원태의양아들황경송(黃景松)을 집밧그로 다리고나와서 너는관헌과밀통하는자이니사형에처함이맛당하다하고 총살하는동시에 그집에방화까지하엿스며또그부근에잇는 박창규(朴昌奎)의집에들어가서 광목등 물품을압수하고그집에도방화하엿스나다행히반소되엿스며또부근모의집에서군자금약간을 령수한후 종적을감추엇다더라(의주)

碧潼에서도 군자금을청구

지난이십륙일 오후륙시에 벽동군송서면송서동(碧潼郡松西面松西洞)에 무장단아홉명이 들어왓다함은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날밤에동디김○○(金○○)와 그외몃사람의집에서 현금삼십원을 령수하엿스며 또그곳구장김주익(區長金柱翊)외몃집에들어가서 주인을불럿스나 주인은 도망하야버렷슴으로그가족에게 군자금을청하엿스나응치아니함으로분개하야방화하얏다더라(의주)

昌城에서 一夜十個所에 군자금을모집

지난이십칠일에무장단오명이창성군신면달산동김득화(昌城郡新面達山洞金得華)의집에 들어가서밥을먹엇다하며또동면의산동 금광사무소(同面義山洞金鑛事務所)에 들어가섯다가 광주류태일(鑛主劉太一)의집 부근에잇는 고주화(高柱華)의 집에들어가서 군자금을 청구하는동시에 방총하고 주인은경상을당하고 현금이십이원을 바더갓다하며 그외에도 여섯집이나 거처서 군자금으로 백이십팔원을령수하야 가지고 종적을감추엇다더라(의주)

目睫間에臨迫한 露領事京城着任

령사가불일간오게됨으로 경성백군진당은모다간다

작년에문뎨의일로협약(日露協約)이무사히해결되자 로국혁명(露國革命)이후에데정시대(帝政時代)의 대사관(大使舘)집모통이에는 비로소붉은 로농로국의국긔가 날리게되여 피란왓든 백군계(白軍系)의로인들은멀리 태평양(太平洋)을건너혹은미국(米國)으로혹은구라파(歐羅巴)로들러갓다는대사일오후에 아라사령사(領事)가 경성에 오게됨으로 경성(京城)에 재류하는 백군계(白軍系)의아라사사람백여명중에는근일행장을수습하야 상해(上海)로다수히 떠나간다는바 이들은상해를거처미국(米國)으로갈터이라더라

講演한學生 舌禍로拘留

옹진군에사는 중학생들의설화

황해도 옹진군(甕津郡)내에사는각디류학생으로 조직된 농촌순강대(農村巡講隊)인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학생 (平壤光成高普生)조도신(趙徒信) 경성경신학교학생 (京城儆信學校) 홍종욱(洪鍾旭) 경성중앙긔독교청년회관(京城中央基督靑年會舘)학생로양배(盧陽培)류병철(柳秉哲)마산미감리교(馬山美監理敎)김원엽(金元燁)등 여러연사는 룡호도(龍湖島)를 비롯하야 여러곳으로 다니며 열변을토하야 불상한 농민들에게 감동을주엇는데 지난 이십삼일룡호도광성학교(光成學校)에서강연을하게되엿슴에 중지를 명하는동시에 연사일동은경찰서(警察署)의 명령으로옵버에드러와잔다는데 그런날 소강(蘇江)서강연할써에 류병철군은단결하자『團結』하자는 연뎨로 초안에로하엿는데 어떤 조선옷입은일본사람이 『주의』를던짐으로김원엽군은다른곳에서도가튼연뎨로가튼말을 하엿스나 경관은아모말이업섯고또연사의말이아모가 축될만한말을 하엿다 고하며 아마도경관이 조선말을 잘리해하지 못하는것갓다고 주의를 듣고 다시와 중지를명하는 동시소강청년회간부(蘇江靑年會幹部)박유표(朴有杓)씨를 동행하야 데리고가서는 웨강연을하라고 하엿느냐하며권총을 쇠내 실탄을재이여노코 여러가지 위협뎍취됴를하엿다는데 드되여김원엽(金元燁)군은오일간의구류를당하엿다는바 관의명령한 중지에대하야 반항한것이라는데 압흐로예뎡디는 시일관계와 기타로 부득이중지되고마럿다더라(해주)

밤알만한아이 맹산에서출생

평남맹산군학천면동창시한용긔안해 추씨(平南孟山郡鶴泉面東倉市 韓用基 妻秋氏)는 팔월십사일에만삭만에 아이를나헛는데 그아이의몸은천부큰밤알만하다더라(북창)

夜京城巡禮記 (七)

自由를일흔나라! 咀呪바든人間地獄

담하나를격하야세상이환락에취할때 더주바든감옥의밤은속연히깁허간다 깃붐의밤서울, 서름의밤서울

간단업시 움지기고잇는 대경성의밤은 우슴과울음에 헤매이는사람의무리로 움지겨간다 그러나이곳에는 주린자가 잇스면배부른자가잇고 우는자가 잇스면웃는자가잇다 이리하야불휘더한자유 이나마 그자유속에서문명의도시 경성의밤이 왓다가또다시가버린다 그러나 인간세상에서 훨신떠러저 잇는감옥(監獄)의 밤은엇더한가? 감옥!감옥이라면 이세상에서데일무서운 산디옥이라고 누구나말한다 그러나 이속에도 피가도는 생을향유하고잇는사람들이 사는곳이다ㅣ아니 가치여잇는 곳이다 자유의권부를빼앗기고 컴더한유린속에서

감옥속은 죽은듯한침묵속으로 깁히깁히 가러안저버리고만다 이와가티종일 공밥을먹어새며 쇠사살에매여 일하던수천 죄수의입방이웃나면 가두어둔 죄수가잇나업나 검사하는간수장(看守長)이하수명의간수들은 손에명부(名簿)를 들고감방압구에와서 벼락가티고쓰게들부른다 무겁게가러안즌감옥속의 공긔는일시에 놀낸과도를이르키고 멀리멀리 울밧그로사러진다 예긔한 소리가지마는이소리에다시한번놀내인죄수들은감방속에서 옷을버서입고우러안커제각기제번호를부르는소리를기다린다 뎔엿하고 무거운감방문이열리면 눈쌀을 웃웃하게뜬

간수들의 시선이밧안으로쏘다진다 목상(木像)가튼 간수의 입에서번호가 떠러지면눈치빨으고 젊은죄수는 서슴지안코「하이」하고대답을하나일본말을모르는 죄수가 맘을조금주저하다가 대답이느지면『싸간』『고라』하고 칙소하고연해연방욕이쏘다지며 무지한손이 부서지라는드시 여위고시드른 뺨을때리다 양상하게말른정갱이를두발로찬다 이이러한당하기 어려운일은 그무거운 송장가튼 생명업서보이는두터운 문이굉장한 소리를내이고 다처지기까지 계속된다 이리하야

감방의밤 은시작된다! 텰창과 텰망을격한 저편산밋금계동(金鷄洞)의밤이 깁허개짓는소리조차 원망스럽게 들릴때취침시간을기다리는죄수의무리는그칠사이업시 과거를 추억하고현재를 한탄하며 미래를단념한다 희미한 뎐등도졸린드시 각금호릿하여진다 똑각하고 방압을드러다보는 간수의눈이 조고마한구멍으로 보일써마다 죄수는몸어안커젊을한다 죽은례는 이리하야 그네들이잠들때까지간수와죄수사이에왕래된다 야순하는간수의 발소래가

저벅저벅 텰창밋을지나서 대로인지 사라진다 가끔은눈치며『이놈아자지마다』하고벼락가티호령을한다 이소래에놀낸죄수들은눈을부비고 다시정좌하고잇다 얼마되지아니하야취침호령이 내린다 일제히등을맛대이고 드러누어잠을 자게되나 이세상에만흔미련을 가진죄수들은 한업는공상의 뿔을해매아게된다 그러다가 하염업시흐르는눈물이 베개를 적시우고 모든것을단념한드시 맛업는한숨쉬고 도라눕는다 『아ㅣ나는이속에서 죽는몸이로구나!』하고 혼자한탄하는듯은 죄수의여윈뺨에도 어느덧 눈물흔적이나타난다 이리하야그네들의밤은 눈물과무서운저주로깁허간다! (사진은서대문형무소)

麻浦洞의좀도적

삼십일 오전한시로부터 두시까지 동안시내 마포동(麻浦洞) 일번디잡화상하는서덕서와(徐德瑞)의 집에관장들툴코드러 말고무신외에도어가지물품을도적하여갓다는데 근일수재후로는 그와가튼좀도적이느러 가는모양임으로일반은주의하기를바란다

三坂通에兒屍 난지사십일가량

삼십일일 오전구시경에 시내

水害救濟問題로 纛島에面民大會

구제하여준단데에사례하고 피수대의확장을당국에진정

이번큰홍수에참화를당한고양군독도면(高陽郡纛島面)에서는생명재산의 안전지책을 구하기위하야 지난이십칠일 오후여덜시삼십분에 본사지국원류진형(柳振馨)씨사회하에 면민대회(面民大會)를동면사무소안에서 개최하얏는데 출석인이 팔백여명에달한대성황을일우고결의사항은치수(治水)에관한건과금번홍수에구조를바든각신문사(各新聞社)와 각단데(各團體)에사의(謝意)를표함일등의두가지인대치수에관한건은피수대(避水臺)를확장하고예전보통학교터에다조림(造林)을하자 또는데방(堤防)을쌋자또는치수연구회(治水研究會)를조직하자는의론이서로 갈래로나호여자못의론이분분하다가결국은피수대(避水臺)를확장하고조림(造林)을하기로일치가결되여 진정위원(陳情委員)을아래와가티선뎡하고각 신문사와단데에 사의를표함일도 그위원에게 맛기고 동넘한시에무사히 폐회되엿다더라(고양)

◇陳情委員 李丙範 河原田甫 金永濟 李淙完 崔榮泰 林秉潤 郭敬植 李武榮 林昌鉉 柳振馨 橫山暉一 盧獻元 徐丙瓚 劉載均

中國勞働者 漢江에溺死

광주리건지다가 물결에쓸녀갓다

중국텬진(天津)출생인 류안(劉安)(三二)은 삼십일일 오후세시경에 시외장안평(長安坪)에 잇는

自轉車가傷人

교당갓다오는길에

부천군영종면 중산리(富川郡永宗面中山里)사는 권녀사(全安史)(四三)는 인천외리(仁川外里)사는 시아즈머니최준덕(崔俊德)의집에와서 묵든중 지난삼십일주교당(天主敎堂)에갓다가 오후세시쯤되어 도라오는길에 시내금곡리(金谷里)十四番地 성하철(成河喆)(二五)의자뎐거에 치어서 머리를 크게상하엿스나 즉시외리홍제의원(洪濟醫院)으로보내여 응급치료한결과 생명에는별로관계업다더라(인천)

동력대이데방(東部第二堤防)공사를 하던중 손에들엇던광주리가 물에떠러지매 옷을벗고광주리를건지려고 물에뛰여드러갓다가 물이깁고 물결이세참으로 약빠간가량을 흘러나려가다가 드듸여간곳을 모르게되엿는데목하 시톄를 수색중이라더라

檄文事件兩氏 무사히석방

례천형평사건(醴泉衡平事件)에 관한 격문사건으로 경찰서에구금중이든 서울청년회원 신벽홍(申大弘)김영배(金英培)량씨는 이십구일 아츰에무사히 석방되고 리방(李秀)씨만 방금도구금되여취됴를밧는중이라한다

全朝鮮自轉車秋季大競走會

一、期日 來十月三、四兩日(雨天順延)
一、會場 奬忠壇公園그라운드
一、申請所 京城本町四丁目朱仁植自轉車店內 서울輪業會事務所
一、申請期 九月一日로同二十五日까지

主催 서울輪業會
後援 朝鮮日報社

大阪에도虎疫發生

동경횡빈에환자발생후 대판에도환자한명발생

일본동경(東京)과횡빈(橫濱)에 호렬자가 각각한명식 발생된지 하로가못되인 삼십일밤에 또다시대판(大阪)에서도 호렬자 환자가 한명이발생하엿는데 환자는병고현 무고군서탄촌(兵庫縣武庫郡西灘村)출생인 중야순이랑(中野順二郎)(三四)으로이삼일에발병되여격리소(隔離所)에 수용하고 진찰한결과 삼십일일에 정말호렬자로 판명되엿다더라(대판뎐보)

長逝한李鍾一氏의 多恨한一生의經歷

삼십여년을오직국가와사회에 죽을때에는미음거리가업섯다

긔보와가티우리백의인(白衣人)의고생을 며표하야 만흔풍상을 격든오파리종일(沃坡李鍾一)씨는 서대문족첨뎡 일영목삼십일번디 자택에서신음하다가 필경 삼십일밤 오후령시 십분경에장서하엿는데 향년이 륙십팔세이더라

半生이獄窓生活

독립운동당시 밤을새인그의활동

씨의소장시대에는 환로에도나 온일이잇섯스나 갑오(甲午)를매 환로를사양하고 민간에잇서 인민의지식계발은 오직 신문이라하야 순조선문으로 데국신문(帝國新聞)을 창간하야 자신이사장이된후 단신으로가산을 탕진하야 십여년을경영하니 순조선문으로 신문을발행하기는 이것이처음이라 이러는동안에 악악한언론은 당시정부의

긔휘되는 바이만허 반생을 경무령(警務廳)텰장생활을하고 경향을 통하야 일곱개학교의교장을 렴임하고 한성부민회장(漢城府民會長)국문연구회장(國文研究會長)으로잇서 정치와 조선말에만흔 공헌이잇섯스며 자강회(自强會) 대한협회(大韓協會)간부로 회보간행에 진력하엿고 일한병합이되자 텬도교(天道敎)로 드러가서 보성사장(普成社長)으로잇스면서 은근히긔회를 기다리다가 긔미운동이 이러나매 삼십삼인의한사람으로 서명하엿슴은아니라 자신이 보성사장으로잇는관계상 말내일만한 직공은모다

내보내고 자신이 신임하는 직공몇사람을다리고 독립선언서 수만장을 박인일이잇다 이사건으로 텰창생활을 삼년동안하엿는데 이동안에 양자도죽고 손자도업서첫스며 족하영순(英淳)은십여년전에집에서나간 후현재는막사과(莫斯科)에서공과(工科)대학에재학중이라더라

膝下에無血屬 장식은친지가

슬하에는일점혈육이업서상가에는오즉 미망인한사람이 슬피울고 친지가모혀 고인을애도하며 다쓰러지고 비새는 세집마루에서는향연이처량하게오른다 장례범절은친지의손으로준비중이다

嗚呼志士의末路 엇지고인뿐이라

親知李鍾麟氏談

고인과친분이 김흔리종린(李鍾麟)씨는추연히탄식하며『사람의평생이 우습지요나는고인을 친척으로아는 이보다동지로 더압니다 내가가티감고하기를 삼십년동안에그의삼십년력사를회고하면 자긔를위하여하엿다는 일은별로업고 오직사회와 국가를 위하야가산과정렬을바쳣습니다 처칠이고젊관후하며항상조선국문에만흔 취미를가지시 구와 사학에는포부가 컷엇스며 평생을 세상을위하야 바치셧스나 운명할때는 미음거리가업서 굶어죽다십히 하엿스니 우리사회에 엇지 고인뿐이겟습니가 사라서호구를못하고 죽어도장례가 막연한것이 지사의말로라하면 너무허무하지요』하고탄식하더라

電柱修繕中에

촌사람을부상케

지난 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전북김데읍내(全北金堤邑內)본뎡통에서는데신국원이뎐주(電柱)를고치는중 뎐선에 걸리엇든연장이나려저서김제군백산면석교리(金堤郡白山面石橋里)류순석(柳順錫)(二五)이란소년의머리가 마저 부상케된바즉시 읍내벽성의원(邑內碧城醫院)에입원치료중이라는데 별중이업시 속치하여도 십여일은 걸리리라더라(김데)

勞働學院募生

전일씨의 유업으로더욱확장

고권일(全一)씨의 경영하던 로동학원(勞働學院)은설립된지사오년동안에 무산계급 자뎨들을위하야 만은공헌이 잇섯든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인데 권일씨가 불의에 서거한후 사회디사업으로 보한동지들은 또는권일씨의 유지를보던지 그학원을 일층확장치안으면 안되겟다하야 각방면으로 만흔로력을하여 오던중김홍작(金鴻爵)씨가원장으로취임케되여 일보다 더욱 완전한설비로써래 구월삼일부터 뎡동(貞洞)일번디(永成門內)에서개학하는 동시에 각부를통하야 모집생을 모집한다는데 그 모집인원수는 각부에 백명식이며 입학뎡도는 보통학교이학년으로부터 각각그뎡도를따러입학을식힌다하며 돈이 업거나년령의관계로 학교에 가지못하는사람은 만히오기를바란다더라

苦草窃盜逮捕

동대문서원이발견인치 일뎡한 주소가업시다니는 김원근(金元根)(三〇)최태복(崔太福)(二五)두명은 삼십일오후 아홉시경에 시외왕십리에잇는 주인모를고초(苦草)밧헤드러가닷발가량의 고초를훔처가지고 다라나는것을 동대문서원이 발견하고당서에인치취됴중이라더라

蓮葉을싸다고 少女를結縛毆打

악착한일인농부의폭행

지난삼십일 시외숭인면 신설리(崇仁面新設里)일백십구번디일본사람농부내뎐등지됴(內田藤之助)의 집에는 어린계집아이를색기로잘방을지여노코란다를 하며 개들을풀어 물리는 등 여러가지로 악행함으로 그어린계집아이는 사람살리라는 소리를 지르며 구슬이애걸복걸하는 정상은참아볼수업섯는데그내용을드르면그계집아이는시외한지면상왕십리(漢芝面上往十里)칠백사십오번디김옥성(金玉成)(一三) 이라는계집아이로서어린애들과가티놀러다니다가 더웁다고련닙을주인에게뭇지도안코여러개를 쌋다고 색기로결박을하고개를놓아 물린것이라하며 근처사람들은 그계집아이를 노와주라고 고청을하얏스나그농부는 듯지안코 동리사람들은 이번만용서하야 달라고 애걸하얏스나 ... 민들은 동부의악독함을 분개한다더라(숭인)

疑問의小兒死亡

적리로 죽은것이판명햇다

인천부신화수리구번디륙호(仁川府新花水里)에 사는 김명석(金明植)(三五)은 얼마전에 최수덕(崔壽德)(二八)이란녀자를첩으로 어더가지고 본처를내여쫏고 산다는바 첩이본처의 소생명남(明男)(五)이를 항상몹시구러서 일반동리사람에게까지평판이놋투고잇든중 요사이 별안간에명남이가 병이 드러서하혈(下血)을 한다함으로 동리사람들은 병의여하를 물론하고 서모가몹시때리여서 그러하다고 간곳마다 떠들던차에 지난이십구일에 병원(病院)으로다리고간후 사망하얏슴으로 일반은 공분심에 떨여서 한참말성거리가 되엿든바 터욱이『호렬자』라하매 일동이 교통차단이되면 동리가 망한다고 야단들인데 병원에서 진찰한바에의하면 타살도아니고적리(赤痢)로인하야죽은것이라더라(인천)

희파람

▲울산병영학성공보교장(蔚山兵營鶴城公普校長)과 일인훈도는비행을감추라고 동창회교섭위원에게 대하야▲명예훼손고소를데기하야 븕은옷을입히겟다고 위협을하다가 이에분괴한 됴사위원이 비행십팔됴목을들어 증거를들어 내이니까그만살려주소서하얏다고▲그과일인훈도의 비행을 숨기고자 교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얼마간 선전을 하다가실패를당하얏다▲학무위원은교장이나훈도만을 옹호하면 직책을다하는것인줄로 아는 모양

競技運動

野球選手權大會

=第一日經過=

京日主催의第二回野球選手權大會는三十日午後一時부터京中球場에서行한바戰績은다음과갓다

4A對○全州勝 全州 釜山

對全釜山一回戰은午後一時二十分부터石原球審石井丸中壘審釜山先攻으로開戰된바全州軍一六兩回에各二點式어더結局四A對零으로全州軍勝(開戰三時半)

3對2로大邱惜敗 全大邱

大邱對慶熙一回戰은三十日午後四時二十分石井球審松島石原壘審慶熙先攻으로開戰된바兩軍實로接戰을演出하야一回에共히二點式어고慶熙五回初에重田三壘打에一點을加하야結局三對二로大邱軍惜敗되다(開戰六時三十五分)

得點 邱2 0 0 0 1 0 0 0 0=3
　　 慶2 0 0 0 0 0 0 0 0=2

三菱3 全龍中1

京日主催의野球選手權大會의第二日은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京中球場에行한바全龍中對三菱野球戰은丸中球審眞鍋鈴木壘審龍中先攻으로開戰된바三菱軍은始終이如一하게肉迫하야二回末에三點을堂堂히어고兩軍零으로持續하다가龍中盡力하야八回初에一點을어더三A對一로三菱軍이익이다(開戰午後零時十分)

入會의絕好機

新學期開始 第三十回生大募集

◎九月中入會員에게는入學資金五圓을減免함
◎本院은一個月間에寫眞術의秘術을全部責任傳授함
◎卒業生은優遇上에互相利益의方便이有함
◎詳細規則書는申込次第(五錢郵票封入)로卽時進呈함
◎事務員‖外交員‖各地支部長을募集함

朝鮮寫眞專門學院 元山府本町三 電話六三五番

其他洋樂器一式 山口樂器店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參參五番 振替京城五二一五番 カタログ進呈

其他運動具一式 山口運動具製作販賣所 京城本町二丁目拾壹番地

高等補修學院을擴張改組한 上海三一公學 男女學生募集

初級中學 一年級新生二班百人
高級中學 (中英大學豫科)二年級新生一班五十人
丁卯丙寅 各級補缺若干人
報名九月十日限 考試九月十一十二日 開學九月十五日
三一公學校長法學博士文學士 金奎植啓
通信處 上海法租界貝勒路吉平里二十一號
簡章說明書隨求隨送

當九月一日부터五日間 米國유니버ㅣ살社代表的大作品 世界的快漢윌리암 데쓰몬드氏 大飛躍 冒險女優로ㅣ라랑포 렌드嬢助演 十八日間世界一週 全十二編二十四卷中 第一回 前篇 第一編 론돈 第二編 巴里 第三編 몬테카ㅣ로 第四編 스마단가에 第五編 코스로 第六編 사하라沙漠으로 十六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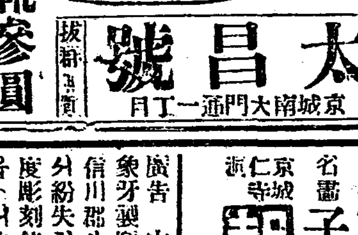
米國메도로映畫會社 一九二三年度超特作品 키통연애三代記 바ㅣ스타 키ㅣ톤氏大活躍 配役 主人公……바스타키ㅣ톤君 娘……마가렛도리히嬢 惡漢……월레스비아리氏 ◇大豫告◇

不日封切 ▲撮影完成 ▲高麗映畫製作所 朝鮮初有의現代的悲哀女作品 大悲哀曲 松竹特約 쌍옥루 前後編全十數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廣告 本記事이오니 注意해보시옵

賣家 京城苑洞壹七五番地 徽文高普校의裏玉宮의西五十間高臺眺望佳垈八十八坪 新築和洋折中ブロック二階建 甕付水道專用溫突浴場地下室並階上三間 歸鄕에付安價賣却함 電本九三〇 本町四의一四〇 大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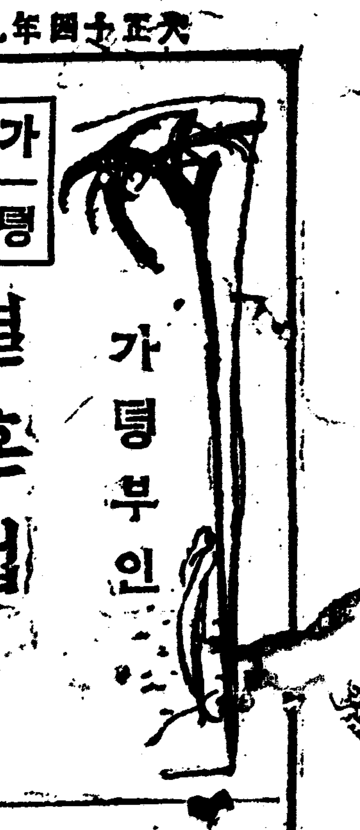


紳士白靴 最新流行輕快한夏季의 歐米式製造 白쓰 象皮 油靑 短靴參圓 理想的最優良品價格은大特價 堅牢하고新型의太昌洋靴 優秀無比 拔群 價廉 太昌號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八月廿九日土曜부터特別大興行 ◇스타ㅣ필님會社提供 愛國心과犧牲, 精神의燦然한 大로맨스,보시라! 國亂과革命과戰禍! 메리카ㅣ夫人主演 名畫 亞米利加의魂 全十卷 ◇스타ㅣ필님社特作 (一名女性의響) 名優챠ㅣ레스레이氏主演 活劇 箱子에든아들 全五卷 ◇米國파라마운트社 喜劇 천치의분쟁 全二卷 ◇파라마운트社 名優도ㅣ마스미항氏主演 名畫 暗夜의愚者 全八卷 ◇스타ㅣ필님社提供 …(豫告)… 名畫 子煩惱 全八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番

廣告 本人이使用하든實印白色象牙製圖章一個四方形正字刻을信川郡斗羅面院洞市場街路上에서紛失하얏기茲以廣告하오니如此照亮하시옵 八月廿六日 信川郡斗羅面院洞里 金學式白

八月二十九日부터特撰名畫公開 米國폭쓰會社 寶窟 폭쓰유니ㅣ쓰 全一卷 米國폭쓰會社 喜劇 三人의쌔이 全二卷 월니암럇셀氏主演 米國회바스會社超特作 人情劇 脫營者 全六卷 눈지오마라氏原作 루자노알바테니氏主演 文明利器 라지오將軍 全六卷 冒險猛鬪大活劇으로定評잇는 豫告 米國폭쓰會社超特作 英國文豪힛친스氏原作 映畫藝術 驚倒的大活劇 겨울리오면 全十一卷 驚異的大名畫 震天動地 全七卷 日活特約 단테地獄篇 全卷 優美舘 電光三九五番



가뎡부인

가뎡평론 결혼법

弱雲生

결혼을 일종의직업으로 본다면 그것을 우습사람도 잇슬것이다 적어도 남자편에서 보면 확실히 귀찬케들릴말이다 그러나 녀자의생활해가는 도리를 살펴보면 결혼이라는직업처럼 녀자의생활을 안정식혀주는직업이 업다 이것은 녀자가 남자에게뎡복을 당한이래 수천년동안 어느사회 어느민족을 물론하고 꼭동되야잇는사실이엇다 그런데 세상이문명해지고 녀러녀자도 교육을 밧게되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녀자로하야금 자긔도사람이라는 자각을주는동시에 남자의구속을 벗지아니하고 자유로운생활로 나아가라고 노력하게된결과 조롱에든새와가티 남자가 먹여주는대로 어더먹고 남자의노리개로 일생을마치고잇든 녀자가 가온데에서 남자와 억개를 견주어 사회뎍으로 활동하는동시에 한거름나어가 남성본위의 사회제도를 고치라는운동까지를 이르키게되엿다 그리하야 녀자에게 가장안전하고 확실하게생활상보장을 주든결혼업을 가르처 매음생활과 시간상차이가 잇슬뿐이라는것을 알게된 녀자가 잇게되엿다 녀자나남자나 결혼으로 맘미아머 경제생활의미를 가장중히 녀이는사회제도를 고치고 경제생활은 만사람이 다가티 남자나 녀자사회를 위하야일하고 공동으로생활해가는새로운 리상으로보면 결혼업이 녀자의유일무이한직업이되야잇는 시대를본다면 정말우수운 일이될것이다 그러나 지금은녀자가결혼업을써나서살수업게 되엿스니 녀자의 해방운동안은결혼업폐지운동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닐것갓다

매서운이태리녀자
디중해서늘한바람에도 음침한긔운그대로잇다
서양녀자의생활과긔질 (六)

서양녀자중에서『이태리』녀자처럼 동양녀자와 흡사한이는업습니다 살빗이며 머리털검은것이며 키가그러케 크지못한것이며기타모든것이

◇동양뎍 임니다그러나 그얼굴골은 동양사람처럼 그대지 유순한맛이업고 일종의 살벌뎍긔분(殺伐的氣分)이양미간에숨어잇는것가티 뵈임니다 그리하야성격도 그용모와가티 고흡지못하고 잔인하며욕심이 만코또는교활하다합니다

리태리반도(半島)는최초에여러인종이 혼합하여 살어온싸닭에실리(實利)에만눈을쓰고

◇미뎍관 념(美的觀念)이박약하야 문화이니 미술이니 그대지 볼것이업섯더니 그뒤에 그들의 실리주의사상이 뎜뎜미뎍취미(美的趣味)로변하야구미각국미술의연원(淵源)이되고말엇습니다 또엄격한『로마』인의 성격은 차차녀그러운 근대사람의성격으로 변하고 마럿습니다 그리하야 그들은오날에는 무슨일이던지 참기로위주하야 그러케

◇성을내 는일이업다합니다 비록속으로 크게성을내엇지만 그것을외면으로 나타나보이지안코(용서)참어가며필경에는자긔들의마음을성취한다합니다 또한리태리사람들은원래조숙하는편이라애정이대단집호며또한질투하는마음이강하고 제의 소유물에대하야 다른사람이 조곰일지라도그것을침범하면죽기한하고 다토게됨니다 그리고자긔가면은

◇분을풀 기위하여서는혹은 음모를하고 혹은비밀결사를 설치하야잔인비도한 짓을거릿김것업시 마음대로 하게되는 일이잇스니『살인청부결사』(殺人請負結社)가튼것이그것이며 오날날 국수당(國粹黨)이니 무엇이니하야 여러가지 음모가류행되는것이다 이러한데에서 나온것이라할수잇슴니다이와가티 말하고보면『이태리』부인은

◇살벌의 풍이만흐며고집이세고 성욕이강하며 질투심이만하서녀자다운아름다운덕이 하나도 업는것가트나 이것을 일반뎍으로 말할수는 업습니다 롬큰다른나라녀자에 비교하야얼골이 사람의 쇼을만한힘이적으며 또한아름다운태가 적다고할수잇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에미인이업다는것은말이 안됨니다 구주에서종교화(宗敎畵)의『모델』이라하면누구든지 거의다이태리부인인것을 알수잇스니즉『밀란』의가무장(歌舞場)이나『로마』의 연극장에가보면 참으로 텬상선녀가튼미인이무수히란만한곳이나다름업시보임니다 이것은『이태리』는계급제도가 엄격하야 상류사회와하류사회의구별이분명한동시에그인물들의 틀립도 대단하다합니다상류가뎡에는

◇미인만 코하류가뎡에는추부가만타합니다 그런데어느나라에·가든지 항상하류사회의사람이 다머수를뎜령하고잇는싸닭에『이태리』녀자를 권반으로 평하자면 녀자다운녀자가 적으며사랑할만한성격을가진녀자가만치아니하다할수잇습니다 그럼으로녀자들은마음이유순한 시인긔질(詩人氣質)을가진남자를긋버히선택한다합니다이것은잔인살벌한

◇심리의 상태가필연뎍(必然的)으로그러한조화를구하게됨이라합니다

로동부인야학 개학연긔
구월십일로

시내인사동 녀자긔독교 청년회주최로 금년사월부터 래화녀자관을 빌어로동부인야학(勞働婦人夜學)을 열고각공장에서로동하는녀공들의 지식을 틔여주다가뜨거운녀름을 당하야 엄마큼쉬이더니 다시 서늘한가을철을당하야구월십일부터권과가튼장소권과가튼시간에계속하야가르치게되엿다는바 원래 개학이구월일일예뎡이엿스나래화녀학교가방금공사중에잇슴으로십일동안연긔케된것이라더라

어름으로텁힌 남북극에사는 동물이약이 (一)
흰곰、순록、해구、고래

장차사회에 주인이 될어린이들의지식이될만한 자미스러운이야기하나를 하겟슴니다 이것은 남극(南極)과 북극(北極)의 동물(動物)인데 먼저어름으로 집짓고 즘생의털로의복을만드러 입는커ー북국다방 차듸찬 나라의리상한 동물로 부터이야기를 시작하겟슴니다『북극에는 엇더한동물이 얼마나사느냐』─이것을 무를진대 우리가첫재로손곱아말할것은 순록(馴鹿)즉도나가이올시다 파연그즘생은북극의 보배라고 하겟슴니다사슴과비슷하되 사슴보다크고 쎨은여러갈래로 난호여 잇스며사람에게 질들이기 쉬운즘생이니북국디방의에스키모ー는사람이나『라부랜드』사람은 이것을 소나말처럼 사용한답니다 운집도 싯고짐실은 수레도 쓰을게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이디방의토인들에게는도나가이는고기와 졋이극히 중요한식료품이되고 썹데기와 털은치움을막는의복과 구두를 만드는것이올시다그리고 뼈는뼈대로 또한쓸모잇게쓴다합니다참으로보배로운즘생이라할수 밧게업슴니다『도나가이』다음으로는 유명한북극곰(熊)이잇스니 곰치고는 가장큰곰이요 전신이 흰털로싸혀 잇슴니다 언제던지 몸가운데만잇고 헤엄을 매우잘치는것이올시다 바다동물로는 일각(一角)과고래(鯨)와해구(海狗)가잇스니 일각은바다에서 사는포유류(哺乳類)올시다웃입에는긔고긴니한개가잇스니긴것은칠팔쳑이상도 된다합니다 그것이마치한개의쎨과가티보히는고로일각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니(齒)는비로부터 해열제(解熱劑)로귀중한약품이 되는것이 올시다북국에잇는고래는고기가퍽 단미하며 매암이 고래라는 것은 베ー링해협과『그린란드』북판에만히잇습니다해구는여러분의서도 대강아실만한것인즉구태여 설명을더하랴하지 아니합니다 이우에긔록한 몃가지동물외에 북국여호、소와산양의특이한털즘생등이 만히잇슴을볼것이니 차듸찬 북극디방도뜻밧게번화한편입니다로상하지아니할수업게되엿습니다(계속)

(몸개라는것은온눌제(膃肭臍)라고도하야『알라스카』해안에서만히생산됩니다)

【상】 북극곰 【하】 북극여호

이들에게는여름더위란것이업습니다얼마나서늘해뵈지안습닛가

가뎡실험과학
썩지안는풀……사탕에개아미…인두에녹…세수대야…
경험으로어든신긔한법

인두녹닥는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시작하니 집집마다 다드미소리도 요란히들리고 겨울준비로 솜옷을 짓는이들이 하로이틀차차더만허가는것은 과연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녀름한철쓰내보지도아니한 인두가 녹이쓸어서쓰기어려운일이만흘것이올시다 다들이나 인두에녹이쓸엇거든 이러케하십시오 먼저불에조금달려가지고 동록이쓴곳을 양초로 문질는후 조희로씨처바리고 정한헝겁에 다시닥거서쓸것이올시다·

썩지안는풀쑤는법

◇……풀을 쑤어서 오래두어도썩지안코 잘쓸수잇는 방법이잇스니 이것은 매우 간단한 법으로 가뎡에서 손수만들수잇는것이올시다 풀을 쑬째에『포름마린』이라는 약품을 두어방울떠러트리면 반년후은 일년까지라도풀이 썩지를아니하고 풀을쑤어도조질ㄴ산(酸)을너코 풀을쑤어두면풀이 구터지고곰팡이가나기도하닙니다『포름마린』은결단코 그런한결점이업고 또한쥐가 풀을먹는다든지 그풀로무엇을 바른후에 좀이집지를못하며 조희나흔집이 낡낡잘달러붓고 돈도만히 들지아니함으로리상적 풀이라할수잇슴니다 그러나 내음새가벌로 조치못한터인즉 향료를조곰너코 풀을쑤는것이 더욱조흘줄압니다

개아미쫏는법

◇……설당이나 과자를 만히사다두고쓰는집에서는 잇다금난데업는 개아미가 몰려드러상자밋헤 만히달려붓습니다 그것은 개아미가 모혀잇는그채로하로밤동안만 숫우에 올려노하두면한마리도업시다써러집니다

세수대야닥는법

◇……세수대야가더러워지거든 머리씨진것을 모하두엇다가 수섬이를 만들어서 비누물을풀어가지고 두어서너번 닥거보십시오

리익이만흔 서리병아리 쌜때는지금 【四】

◇종란의선택 이와가티 암닭의 준비가되고닭의안을 눈치를뵈이게되면 곳조흔알을 구하여다가 안기어야할것이니 아모리 부업이라할지라도 낫분종자를 쌀필요는업는것이다 그러면엇더한 종자가가장 리익이 만흔것인가 이는물어볼것도업시 알잘낫는 종자를구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조선의 재래종은알이적음을 아니라 낫는수효도매우적음으로 반드시 개량종을구할필요가 잇다 개량종이라함은 대개 서양에서수입한 종류를이름이니 그중에디중해종(地中海種)에속하는『레곤』『미놀가』등이가장알을만히나흐며란육겸용(卵肉兼用)에는미국종의『푸리모스록』과일본종의명고옥(名古屋)이매우뎍당하다

새알을안기라

조흔종류의 알을구할것은 권긔와갓거니와 아모리 조흔종자라도 그알이나흔지 오래된것이면 생명력(生命力)이현저히감퇴되야안긴다 하더라도 조흔성적을엇기는 어려울것이다 전문가의 말에의하면 알은나흔지 두주일까지는부화력(孵化力)이 유지(維持)된다하나될수잇는경우에는나흔지 열흘이내에 알을사용하는것이가장조타한다

암수알의구별

조흔별·신선한알을 구할것은물론이어니와 셋재로는 암수알을구별할 필요가잇다 엄쎄쎄인병아리의 대부분이 수컷이라하면 영계로 잡어먹는데는 조흘지모르나 양계상으로는 큰손해이니 위처알로암수를구별하는표준은

一、알의모양이동근것은긴것보다다암닭이만흐며

二、두살된암닭과당년생장닭사이에나흔알은암닭이만흐며

三、한배알중에 먼저 나흔것은 장닭이만코뒤에나흔알은암닭이만타한다

이와가티 알을 선택한후에는 어미닭의안으라는알을쌀보살핀후밤을 리용하야 동구미에알을주면어미닭은 자연의 법측에의하야스무하루만이면병아리를까가지고나려올것이다

의상

인사나위생에 관한것을 거리낌것업시 무러주십시요

조선가뎡의실묘되는것으로여러분이 시험하야어든바 지식이잇스면 본보로보내여주시기를 바람니다 여긔서는 보내시는대로 곳발표하야드리겟슴니다

본보에서 가뎡에대한 지상의란을설시한후로 날마다답지하는여러분의 문의는 진실로됨은 테ー블우에 산가티 싸히여잇슴니다 일변히 그것을더보기만하라도 또한지면관계로 매일긔재하기도 어려울줄암니다 그러나독자여러분의 무러주신 그수고를 헛되히하여드리지 아니하고저 할수잇는대로는 오날부터충분한 대답을하려고합니다 다만일건문의 하여주신분에게 지면관계로·대답지못하는 일이 응당만히 잇슬터인즉이에대하야는 미리 량해하여주시기를 바라고압흐로 본보와여러분의가뎡과 더욱더욱 친밀하야정답게의론하여주기를원합니다이올시다

【문】 귀사에서가뎡에대한상의란을 신설하시와 흠뻔해결치못하는 답답한사정을 가티의론하여주심은 한업시 감사히녁이는바이올시다 생은하로에 잘벌어야 사십전내지륙십전에 더지나지 못하는수입을 가지고 우리부부와 아이들을 합하야 네식구가 겨우겨우살어감니다 그런데 외눈의 안경모양으로처가 또태중이 오니경제가중녀하면물론의사라던지산파라던지혹은경력이만흔 부인들에게 부탁할 터이지마는 모도가마음뿐입니다 그럼으로 별수업시제가 그일을당하지아니하면 안될처디올시다 그도불행히 난산이될째에는할수업스나 그러치만 아니하면 실행하여볼가하고 몃가지뭇고저합니다

一、아이를 나흔지 몃분만에 태반을 자르며 아이의복부로부터 몃치가량 버임닛가 ?또한태반은흙에 살더도 조습닛가?

二、아이에게한처치

三、산모에게대한처치

四、산모의음식

(黃金町五丁目金醍)

『답』무르신것을 진작 대답하여드리지못하야 미안합니다 이제시내 한성병원장 김긔영씨로부터 확실한대답을 드리면서 본보에그대로긔록합니다

一、즉시 태줄을 잘러도좃슴니다 아이배꼽에서 대략네손가락 넓이를 남기고두얼을 잘러맨후 가운데를버힐것입니다 태반은 불에살으던지 영에파뭇던지 편리한대로하십시오

二、녀뜻한물로씻쳐주고『납봉과오리불류드』파겨드랑에 뿌려준후 면사나부드러운 흔겁으로 입과코를 정하게 씻서주고눈에는一%초산은수(硝酸銀水)한방울씩너허주시오

三、산모는될수잇는대로안정을식히고국부를깨끗하게씻친후에 정한흔겁으로 매여줄것이올시다

四、산모의음식에대하야는별주의가업고재래의조선식으로미역국흰밥이면상당합니다

金剛禮讚 (三)

白雲香徒

絕壁는沈博으로 昭曠은幽邃로 새局面의打開가들어갈수록밧바집니다 그러나平鋪한石床과滑澤한岩面은여전히潔白하게여전히嫵媚하게淸溪澄潭을실코나옵니다

◇船潭의東岸에는常啼菩薩에서나려오다가天然한一石이뚝碑처럼섯스니 이것이俗에金剛山紀績碑라고하는것인데 아마넷날에는거룩한『선돌』의한아로엄씩한대접을밧든것인지도모릅니다 또그西岸에는길을쉬고『次次城』과『藏經巖』이잇스니 흔히잇는 造塔이란것처럼 돌부덕이를수북하게모은것이 次次城이란것이오 大小不等한 平方한石片이天然을어슷비슷쌔혀놉다라케올라간것이藏經巖이란것입니다 次次는次次雄의그것임이의심업는즉國語祭壇의古名이滄海遺珠처럼여긔가남앗슴을깃버할것이며 藏經岩은性質로말하면多寶塔 須彌塔과뜩가튼것이언마는 여긔서는塔層을書卷으로보아서藏經으로일홈지은것이 또한자미잇습니다

◇洞이숫나면서次次城밋헤가한번덜퍽진소를만든것이火龍潭이니압헤들어오자면마조막이오안에서나오자면첫재감슬하는심인지水深이나流勢가八潭中에가장雄大하며 森蒼한숨이그대로비최어時間을딸하서는光線關係로식퍼런히깁다케보이매 火龍이무엇인지는몰라도 무슨怪物이든지그속에들기는든것갓습니다 橫殺이죽죽커層層거리로潭中으로汐入한와뭇하고물밋한石勢가여긔와서새삼스러운愛着을늣기게하도록奇異합니다

獅子巖

◇鷹潭、船潭을지나서부터는兩岸의峰巒이갑식이좁아들기비롯하고石稜稜한山容도컴컴鬱蒼한林樹로變하야벌서부터光景의一轉機가逼迫함을豫感케합니다

◇潭의左邊에압다랗게雄踞한것이法起峰을건너다보는一石峰이 萬瀑洞을遮面하는獅子岩이란것이니 수북한樹林우에서나운얼골을돕히들고서쉼은탑인지잉은八潭에게빌려주고멍하니잠자코잇습니다 그러나넷날元氣잇스실적에는자못獸王의威嚴을發揮하야여러가지자랑할만한傳說을가젓습니다 오랑캐가內地로넘어들어가려하는것을天地가뜰뜰우는一吼聲으로물리친일도잇다하며 또어느外人이明鏡臺를壓하러온것을이목쟁이에서가로막아못들어가게한일도잇다합니다

◇그러나그보담자미잇는것은火龍潭의火龍과겨누든이약이입니다 獅子와火龍은왜한참동안서로으르렁거리면서雌雄을決하지못하야어언간彼此에傷處도적지아니하엿습니다 언젠지獅子의압발이써러저서안진자리를보존할수가업시되엇는데·컨너편法起菩薩이불상히녁이사몰한아름집어던저주시매그것을고이고저오업홍려짐을免하엿습니다미상불거의떨어질듯한獅子岩이간신히부지하기는그무릅밋헤고인돌한어의힘인듯한데그건너法起峰에는뚝그것한아써저나온자리만한구멍이나서잇습니다 필경火龍은좆겨가고獅子는시방까지當年의勝利를자랑하고잇다는사실입니다 이것은火龍으로써敎를 獅子로써法을象徵한兩敎葛藤說話의긋一『모티브』입니다。

朝露

金海嗣

아츰날!

白灰色의구름장막을

고요히열며

해님이强한光線을쏘아보낸다

풀쇼테매친이슬방울!

방울방울이곱게곱게

아롱거리며반작인다!

그러나이것은瞬間의幻夢!!

얼마못잇서 그자최조차사라지고마러라!

아!朝露를누가비웃으랴?!

人生의榮華、이朝露의한幻夢인저──。

──(完)──

農工結合論 (三)
現下經濟大局上으로본우리의救急策

金鳳集

우리半島의經濟的優越한點을考察하건대土地는處處肥沃하야各種農産物이豊富하고地中에는金銀銅鐵을爲始하야國民經濟의原動力되는石炭의産出이또한만흐며三面의環海와各河川에는海産과魚族이亦無盡藏이오各河川과四海의潮水는能히動力으로利用할수잇서 天然의富源이無盡藏이라하야도過言이안입니다

이와가튼無限한天然의富源을그저두고抛棄不顧하야오날과가티무엇이라고形容치못할赤貧이되엿습니다 녯적사람의所謂天作孽은可活이나 自作孽은不可活이란말은우리民族이猛省하여야할格言일것입니다

오날우리의日常生活의狀態를생각하여보면卑近한例이지마는綿花한斤에二三十錢식밧고팔어서그綿花로加工製造한所謂西洋木을綿花原價의四五倍의高價로사서使用하며그綿花實로製造한綿花油를또그綿花價의三四倍의高價로사서使用합니다 이것은오즉그一例에不過합니다 衣食住三者가다거의남의손으로加工製造한것을使用합니다 日常生活의萬般事가다이러하니 오날赤貧破産 饑飢 餓死 流離는自然의結果요避치못할過程입니다

이와가티今日世界의現狀이나우리의現在의現狀을잘아지못하는우리父老들이實學實業이무엇인지産業經濟가무엇인지를아지못하고도로혀 아즉도實學實業을賤하게녁이는것은그리恠異치아니하나 新敎育을밧어世界의現狀과우리의處地를理解할만한우리靑年들中에도往往實學과實業을賤히녁이는傾向이잇슴은참理解키어려운痛歎할만한일임니다

오늘날우리에게는努力치안으면안될것이한둘이아니오奮發치안으면안될問題가한두가지가안임니다 어느것이急하지안으며 어느問題가急하지안으리오만은刻刻으로破滅하여가는經濟의救急日로增加하는饑饉의救急은急中의急임니다 오늘날우리의悲慘한經濟를救濟함에는産業의方法이잇슬뿐임니다 産業振興問題는우리의오늘날死活問題입니다

産業中에도原料를加工製造하는則工業이더욱緊急問題입니다 工業振興이란말은네단簡單한듯하나오늘날우리의現在處地로써經濟와産業이거의다破滅된우리로써決코容易한일이안임니다 工業振興에는國家的關聯의保護와援助가必要한것은勿論이지마는 工業發達에엽지못할必要한條件은 約여섯가지로分類할수잇슴니다。卽資本、原料、技術、勵力、勞力、販路의여섯가지 要件이必要함니다。

오날날우리의經濟狀態로서다른사람의充實한經濟力과天壤의大差가잇서 到底히對等이아닌것은明若觀火의事實이오 오날우리社會와가티敎育과科學思想이普及되지못하고技術이發達되지못한우리로서敎育과科學이普及되고技術이發達된다른사람과對等이못되는것도明瞭한事實이오其外에여러가지條件이어떠한가는諸氏의判斷에一任하고말하지안으려합니다

이러한現狀에잇는우리로서如何히하면工業을振興할수잇느냐하는問題는오늘날우리의將來를決定할莫重한問題임니다。

다만漠然히工業을振興한다하면이것은밤낫떠들어도机上空論일것입니다 實現性과可能性을가지지못한空論에不過할것입니다

나는現下우리經濟의救急策으로農工結合論을提唱합니다 農工結合이란말은지금까지別로씨이지안튼말입니다 今日까지의大企業制度만을主로研究하는經濟學에서도그리論議치안흔것입니다 即農工結合이라함은農業과工業을接近케하야農産物을곳工業의原料로使用케하고工業生産物을農業의原料機具及農家의消費에提供하는方程을말함이외다。

農業과工業의關係는참密接한關係가잇슴니다工業은農業者에게食料의供給을밧어其原料로加工製作한生産物을更히農業者게提供합니다 그럼으로工業이發展되라면其原料의供給을밧는農業의發達이必要하고 工業이發達되면其影響은곳農業의肥料와農具의進步되여工業의發達은農業의發達에重大한關係를가지고잇습니다 그래서農業과工業은國民經濟의兩翼과가티彼此相扶相助하여야圓滿한發達이잇슬것입니다

小說 웃고십건 우서라!

周相作 【28】

一○의四

그러나 영준이로서는 어느쌔든지 섭속만피이면 봉선이와다시만나리라는생각이업지안흔고로여전히 뒤人배는 보아주면서도로리영업을 시작하게된 뒤에는그대로 기생노릇을 하게하야왓다이것은 영준이의 령리한생각이나추월색이는(조선의 추월색이요 봉선의산월이지만)는그것이 마음에흡족지못하얏다 영준이가 돈에 또들려지내는것을보면 처음미덧든이만갓지못하니와 어떠케손님이라도 만히보다가 상당한직자를만나면 한밥먹어보고도십고 그러는 한편으로는남볼상에도 자미업스니아조들어안치서 료리영업에 권리를잡아가지고 속을채워도보랴심혓다 그러면이와가티 을지갈지하는이관에 봉선이가 또차온모양이라 이긔회를 노치면안되겟다하고 아조단김에 좌우간뜻장을내이라고 밧삭뎀비는판이다 그러나 영준이편으로보면 그럭커럭 정이안든것도 아니요개업한지 몃칠안되는터에 쎈중에서제일잘불는 아이를 노치서는아니될뿐아니라 료리장수와지김주사를 압세우고하고 될수잇는대로 점잔케놀아서 개간회사인가를 주선하느라고 도라단이는터에 기생서방노릇을 한다는소문이 날것이니 피차에조치못할것이라 그커큰소리만 내이지달라고 씩씩빌어위선 안정을시켜노코 슬그머니 쎄처나오는라니까 자연히 그러케는진것이엇다 김주사는 밥상도물리기전에잠간안첫다가

「오래간만에、만나서쌜래줄가른정화두만을테니 나는 쌔질차례요」하고닐어서며 눈짓으로영준이를불러서데리고나가더니한참숙은거리다가 가버렷다 래일이라도 부별수잇거든 보내고그러치못하거든 다른 려관에라도 옹겨아즉숨기는게 조켓다하면서 자긔는 산월이가의심을 내일터이겟기에 먼저가겟다하는수작이다 김주사는 얼마인지 분명히는 모르지만영준이가 봉선이압흐로 령섬직이나세어준눈치를 아는터이라 봉선이가 또차온것도 차차형편보아서는 해롭지안타고도 생각하얏스나 그러타고 공연히서둘으다가 산월이싸지 노칠싸보아서벌서부터 호차궁리가 자지러첫다

「글세 어쩌자구 여긔까지 또차오던단말이야 래일이라도 얼른써나지 자네가틀사람은 이런데와서 지내지못하네」

두사람이 마조안게되니까 영준이는 위선이러케 입을벌려다 ……추월색이는 어떠케와서지냄라구?」하며 남자의얼굴을치어다보앗다 남자는 귀가번쩍뗴이며 마조한참 바라보다가시침이를 쎼이고

「글세 추월색이가살든촌월새로는 첫재그후가 배여나지를못할것이요 게다가 내힘이벗지를못하는터에 살림을 부지해나갈수가잇서야지 지금 첫서슬이니와 그런소리도하지만 열흘이못되어서 차표사달라고 성화를바칠게니 두구보자구」하며웃으니 봉선이는 여전히남자의눈치를 살피다가

「누가 두살림하겟다해요 그래추월색인지 마마님인지 계신데가 밥이나짓고 빨래나해주면밥이야먹여주시겟지요」하며 입을삣죽하고 외면을한다 남편은 도어이가업섯다 필경서울서 소문이 난게로구나 하는생각을하면서

「내가여긔서 살림한다고누가그래? 추월색인가누군가하는것도 김주사가 볼고왓스니까와서잇나보다할뿐이지」하며변명을하얏다

「암그러타뿐이야요 나보다두이집하녀가더잘알테니어듸그래서야이세상에 누구를밋구 사드람!」하며한숨을쉬인다 사실자긔부처라고는홀어머니와동생남매가 잇건만 어머니와는다라나서무슨짓을하는지 돈으로 뎨성화가나서시랑를버릇고동생은 인제야 소학교랍시고다니는터이니는고독한생각이 업슬수업다

「이집하녀가 나를알기나하는데말이야? 공연히다른사람이약이를듯고연청을하는군」하면서 이정화야?」

「남만 업수히녁이시는구려 게긴한말은귀먹어리두알아드린대요」

이러한사랑싸홈이 어느쌔까지 싸웟는지를아는 사람은 몰랏다

水災義捐金
조선수해리재구제회에온것

(西大門二丁目續) 金一圓式 金東燦 金寅基 趙熙俊 徐相勉 金孝權 金炳錫 羅股漢 時俊 梁在烈 金五十錢式 金容英 文重敎 金珠煥 玄丑運 景瑞 韓殷俊 李淑卿 黃庠演 李時化 田容圭 南肯熙 朴淳 會 高得麗 李鼎煥 金在基 朴文卿 朴星正 李鎔石 車敦明 尹明錫 趙綱和 申泓均 南廷彬 朴容贇 金源岡 李國顯

(京畿道利川) 金三十圓式 元谷浴 曹應煥 李龍周 金十圓式 崔文贇 金俊集 金六圓 李容淳 金五圓式 朴成勳 丁奎七 朴魯憲 金炳哲 金炳眞 朴宗性 倉前里農事小作組合 秦學祿 俞鎭溶 李爽載 金四圓式 李德鄰 具滋鄰 金三圓式 李容默 柳瑛燾 李敎文 崔應泰 隆泰興 崔榮澤 李台煥 趙德寶 金正燮 李圭台 全泓植 金二圓式 鄭萬永 金根培 申晦均 李陽載 文健植 任鎭宰 文致順 延圭完 洪昇紹 洪淳鈺 金龍臏 李鳳烈 李相哲 趙宗鎬 金龍集 李容合 金敎憲 李鎔浩 南川商會 吉英均 金一圓式 鄭寮三 尹址鎔 崔俊澤 秋昌鐸 洪順日 金明煥 鄭圭昌 劉雨泉 李學聖 金致祥 鈴木軍次郎 崔根弘 李敬培 郭台鉉 金榮濟 任軒宰 丁奎萬 金昌雲 尹相玉 朴禹鉉 宋台浩 辛用瑞 徐昌組 南天熙 王敬倫 李興男 李平執 尹貴吉 秀澤信八郎 金東植 李斅泳 任禹淳 金善玉 李瑛浩 徐應九 金東秀 鄭智永 李敬澤 金五十錢式 柳春根 金敎文 申成均 河邊賢 金敬旭 權順西 徐桂玉 崔秉學 柳寅昌 鄭益哉 金七十錢 南基成 外一名

金二圓 黃金町一丁目 李麟漢 金一圓 同 鄭寅漢 金百圓 中學洞 閔斗植

計八百九十八圓七十四錢也 累計十四萬二千六百八十二圓七十一錢也

金三百圓十錢 東京小石川區久野町 洪埈杓 金五十五圓 岐阜縣豊岡町長 佐藤邦三郎 金百十六圓五十錢 北海道夕張町長 向田幸藏 金二十圓 東京淺草區代地河岸 陵部氏 金四圓 東京府山中澁谷 小澤恒忠外十六名 金五十圓 東京府下荏原郡大崎町 公爵夫人島津伊藤子 金二十圓 東京四谷元町 伯爵松平直亮 金一圓 中野電信第一聯隊日鮮融和生 金六圓五十錢 全南羅州郡金川面 裴敬祚外九名 金五圓 東京神田今川小路 風間輝三 三方情志會 金五十錢 同日本橋區澤口善慈 金一圓五十錢 同四谷區新宿 日本屋酒場植田平吉 金三圓 鎌倉町 渡邊아기 金一圓 東京本鄕駒込動坂町 無名氏 金百圓 宮崎縣東臼杵郡延岡 子爵內藤政擧 金十五圓 東京小石川區林町 德川達道 金五圓 福島縣安達郡鈴石尋常小學校長 根來毅 金一圓 東京一高校生 金一圓 埼玉縣崔名氏 金二十五圓五十三錢 大邱刑務所職員

計七百四十一圓六十三錢 累計十四萬三千四百二十四圓三十四錢

金三千圓 慶尙南道京城本工組合員一同

(三坂通) 金百圓 高村甚一 金十圓式 龍谷政次郎 藤原硝子所 佐瀨熊鐵 野村實 金五圓式 濱本佐之助 田常藏 富田虎吉 吉川덴우 松村正直 多田隆吉 岡村政治 金四圓 上野孫三郎 金三圓式 池田源五郎 村上玉男 入佐榮之助 土肥孝治 河井莊介 小林寅好 松崎良之助 金二圓式 石田辰次 兒玉才三 西島義子 龍辰八 重田嶋聰 中村敬利 是枝藤藏 小野小一 草野汎 山口嘉太郎 浦本 河口益治 鋼手洗繁馬 西島熊太郎 金子忠規 楢崎清 鈴川丑太郎 井川辰一 大浦愛助 河波市藏 深澤貞 今村榮喜 永峰 內山佐久藏 奧田藤雄 仲尾太景榮 中根八太郎 大塚硝子所 松井平三郎 草場亮一 林甚太郞 沼永藤作 酒井作藏 中崎茂雄 寺島安 村上克高 林田荒嵐 中尾塚巳 立山寬 上杉直三郎 奧田熊治郎 月野藤輔 越川鳥吉 西田滑吾 皆本君工 松葉與三治 金一圓五十錢 五百旗頭虎之助 金一圓式 堺與十郎 松元嘉吉 今野吉六 森嘉吉 小田亥五郎 向井好松 馬場茂 駒田尙吉 渡邊六藏 由倉彥三郎 伊賀崎豊輔 廣田讓 藤井歡三郎 片村ミス子 平山由松 神山雄次郎 中島德 安心院和成 相川義起 向山斐次郎 高橋惣一郞 中林伸一 瀧澤商店 小川寧太 源太 伊藤幾太 西村商會 藤田나메代 厩牛昇 荒玉直一 神崎助太郎 堀起之進 北岡堅吉 林商店 山口玉吉 高森俊三郎 桑原秀一 今林榮治郎 中屋悅之助 佐上마기 吉富太計士 及川데루 大久保마사쓰 前田光吉 松原幡次 吉利淳 山下武夫 山崎茂雄 金岡政次 植田勘 鹿瀨久治 三苦磯熊 谷小次郎 杉島芳三 坂本猛 高橋岩太郎 佐藤龜市 中島德 金五十錢式 池田實 宮本茂好 山本勝六 天野秋夫 甲斐스기 桑原源藏 橋場喜榮 長治다게 麻生大藏 末永平助 岩山히데 菊地直 柳建寺 坂根新太郎 前田靜子 鳥居只次郎 日高均 光田秀男 森完一 金一圓九十錢 西田豊次郎外七名

(光熙町二丁目) 金二十圓 張淳明 金十圓式 尹熙慶 趙義植 金鎬俊 金五圓式 黃鎭鎬 朴永秀 李容夏 金三圓 井上卯三郎 金二圓式 韓善鎔 朴潤秀 安在旭 金元陽 申龍均 韓慶錄 鄭萬龍 李基善 李在根 朴元植 李慶雨 姜完珪 管野鐵之助 池田鶴松 金昌默 李公三 尹正鉉 金一圓五十錢 鄭峯胤 金一圓式 金永喜 李永根 金命哲 朴東勳 林相元 慶錫胤 任景春 安明德 姜漢明 林大均 金聖淳 崔翼煥 玉振聲 松村茂總治 李圭泳 金德淳 朴性熾 李周龍 郭昌鉉 太召史 洪鍾歐 兪致長 金鍾相 吳光善 金富英 崔春三 張慶完 趙顯祜 洪恩求 朴東烈 金永鉉 朴善浩 遠藤宇之助 趙昌昊 魚得濂 孟聖實 張泰植 鄭潤植 延弘根 金明淳 金五十錢式 洪淳慶 金順化 宋永波 韓明善 崔基鍚 金波鎭 鄭誥亨 右衛門 金榮澤 黃龍珪 李商說 場弘植 皮桂順 全英圭 金善爵 趙永根 文奉漢 木幡金藏 朴春植 張錫龍 李岐鏞 金五十錢 趙順元外一名

(九化門通) 金十圓 金容觀 金五圓式 張仁準 戶川武 金三圓 韓雲鶴 金二圓式 金昌鐸 邊相昊 佐川사가 龍興福 金鍾燦 千德基 金一圓式 張潤植 李鋼膨 相見九 慶應煥 中川米太郎 竹岡儀三郎 內藤嘉太郎 金漢驥 崔忠鉉 金漢秀 李潤基 金信 尹希輸 閔弘三

「合併日이라고」 錦山에서 講演禁止
一般의 非難이 沸騰

全北錦山郡邑에 在한 錦山留學生親睦會에서는 錦山靑年會、東亞日報錦山支局、朝鮮日報錦山支局等三個團體의 後援으로 去二十七日에 靑年男女懸賞雄辯大會를 錦山靑年會館에 開催하려다가 事情에 依하야 懸賞雄辯大會를 講演會로 變更하고 去二十九日上午八時半에 開催하기로 諸般準備를 하얏는데 當地警察署에서는 時間이 臨迫한 下午七時頃에 主催者側代表를 請하야

突然禁止 하엿다는데 理由는 演士가 警察階級임으로 原稿檢閱이 아니면 許可하기 어렵다하며 主催者側의 말을 들으면 時間이 臨迫함도 不拘하고 前例에 업던 原稿를 提出하라함은 禁止하겟다는 內定이 有한 듯할 뿐 아니라 當日이 韓日合邦日임으로 그와 가티 된 듯하다는데 錦山에는 講演禁止가 처음인 만큼 一般은 警察當局에 對한 非難이 不少하다하며 交涉한 演士及演題는 左와 如하엿다더라

現代文明에 對한 法的考察 鄭海仁
우리의 現狀을 보고 朴贊永
理想的 武器? 金顯根
成就이냐? 破滅이냐? 韓詰宗
生의 矛盾과 衝突 任泰熙 (錦山)

龜浦에 女子靑年 새로創立

龜浦에서는 去月二十八日女子靑年會創立總會를 當地靑年會館에서 열고 李殷子孃의 司會下에 會議를 進行하고 委員을 如左히 選擧한 後 閉會하엿더라

委員長李殷子 庶務部盧淑子 朴敬子 財務部金漢淳 文鳳煥 矯風部尹明淑 體育部金小守 李仁淑 社交部尹今淑 文藝部李貞子(東萊)

苦學生相助會 光州에서創立

光州의各學校를通하야在學生이六千餘名中極度의苦學生이數百名에達하나이라한아이를爲한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思하든바八月二十七日午後八時當地時代日報支局에苦學生多數가會集하야討議한結果苦學生相助會를組織키로하고卽席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고左와如히任員을選擧한後同十時에閉會하엿다는데將來方針은木工部를設置하고家具를製造하야學資를補充하기로한다더라

◇委員 委員長王在一 庶務部委員張漢奕崔一寧金圭淵 經理部尹相吉金容律 事業部申浩湜 社交部王在一申浩湜(光州)

農民을爲한 新聞講座
每日曜日開講

光州牛峙日曜會에서는農民들에게社會常識을講習하며靑年들의思想統一을作成하기爲하야每日曜日에新聞講座를開催하고一週間新聞의各欄을蒐集하엿다가討論、講演、硏究、로써普及식힐터이라는데各欄擔任員은如左하다더라

政治欄吳洪根 社會欄表錫柱 金基烈 經濟欄曺永燮 小說欄李根洙(光州)

馬山勞農委員會

馬山勞農同友會에서는去月二十九日下午九時에石町事務所內에서臨時執行委員會를開하고臨時議長吳學允氏司會下에來秋夕에開催될勞働大會를爲하야崇武團에交涉한公文과同團答을金尙殊氏가朗讀한後崇武團에서는合同을拒絶하얏슴으로本會에서도年中行事인同時에單獨開催할것과同大會開催할場所交涉委員으로吳學允尹烈卿兩氏를選定하고開催大會事件으로因하야中傷的言辭를崇武團員이傳하니그發生한原因을調査하야來三十日總會에報告하기로金炳善朴濟兩氏를選定하야調査케하고其他諸般事項을討議한後同九時에閉會하엿다더라(馬山)

龍江에 勞働夜學
勞農靑年이 設立

光州郡牛峙勞農靑年會에서勞農學院을設置하고無産兒童의敎育에努力한다함은累報한바어니와各區를通하야夜學을實施하기로하고第一着으로龍江里에勞働夜學을設置하엿다는바渴望하든農村男女는開學日부터滿員으로大盛況이라는데講師는金泰亨金容瀲兩氏가無報酬로敎授한다더라(光州)

新昌面民大會
停車場設置를爲하야

京南鐵道五木停留所를停車場으로昇格식히기爲하야附近有力者들은數年동안을極力活動하던바八月二十四日에는新昌面長李德九氏와面內各有力諸氏들은京南鐵道天安本社에交涉한結果同會社에서는停留所를停車場으로變更하겟다는承諾이有하야去二十五日에新昌附各有力者及面民一同이大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한後에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牙山)

決議事項
一、京南鐵道五木停車場을設置하기爲하야仁州面、新昌面及仙掌港交通路를擴張하기로하고七月末日內에道路修理工事를終了할일

金堤郡草處面民 私立學校期成
經費豫算도充分하다

全北金堤郡草處面에는從來로兒童의敎育機關이업서一般兒童의敎養이甚히困難하던바今春에郡廳으로부터旱災救濟穀五十石을分配時一般面民은秋成後各其配當된正租를다시난호어이것으로私立學校期成資金을만들고남어지不足額은東津水利組合工事를請負하야每戶에서人夫를出捐하야

◇그외勞賃 으로補充하기로한다는바同面은全郡貧面中에도멋재가지아니하는貧面임으로面民의收捐으로는到底히不可能하엿던大事業의多年宿題는今年에이期會를利用하야不日內로面民들이草處面私立學校設立期成會를具體的으로組織하야實行하기로同面面長許椽氏와有志崔柱煥氏等이方今善後策을講究中이라는데一般面民들의敎育熱은매우熱烈하다더라(金堤)

木浦少女會總會

木浦少女會臨時總會를지난二十八日午後一時에木浦靑年會館에서會長金貞賢孃司會下에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一、會費及基本金에關한件
一、徽章及會旗에關한件
一、少年運動宣傳講演에關한件(木浦)

講演音樂會
盛況을일우엇다

全南順川普校卒業生同窓會와當地留學生會의主催로去月二十六日午後九時에順天公立普通學校大講堂에서朴永慶氏의司會下에講演과音樂會를開催하얏는데大盛況을이루엇다더라

木浦에 勞働少年團 새로創立

木浦에서는停車場과船頭에서지게를지고품파리를하야[illegible]히지내는勞働少年李三一諸童朴尙烈朴富順千點露外數三少年의發起로木浦勞働少年으로하야금만흔도움이되고자지난二十六日下午九時에當地勞働靑年會館에서發起總會를開한바發起人으로出席한少年은二十餘名에達한大盛況이엿다는바木浦勞働靑年會幹部朴勝億君의司會로同團創立總會準備에對하야討議한結果左記各項을決議하고同十一時에無事히散會하엿다는데木浦에잇는勞働하는少年은今後로부터少年다운活動을하기爲하야多數參加를바란다더라

◇決議事項
一、創立總會는九月四日로함
一、團員資格은勞働하는少年으로서當年十二才부터十八才外지
一、準備委員은李三才吳福男朴尙烈李順燮(木浦)

仁川에 敎育講習
永化女普에서

仁川私立永化女子普通學校에서는八月三十一日부터九月五日外지仁川地方女學校教員講習會를開催하고該校附屬七校男女教員三十餘名을召集講習케한다는데講師는邊成玉、安東源、金秉琪三氏라더라(仁川)

巡講團來江東

去二十七日에成川俱樂部와本社成川支局主催의講演團一行은江東에到着하야午後八時에天道敎宗理院에서江東靑年會長金商和氏司會下에開催되엇는데團長李禎哲氏의成川俱樂部에對한趣旨說明이잇고이어서演士李浩斌君은우리의要求하는人物이란題로熱辯을吐하고本郡公普校先生金陵道孃의獨唱이잇슨後또演士李眞海君은우리의資本이란題로亦是熱辯을吐하야만흔聽衆의拍手喝采를밧고無事히閉會하얏더라(江東)

雄辯會盛況

黃海道長淵公普校同窓會主催인雄辯會는去二十七日午後八時半부터公普校講堂에서林炯疇氏司會로開催되엇는데長淵에서는初有의盛況을일우엇다더라(長淵)

群山思想講演
難産에서盛況으로

群山靑年會主催로社會問題大講演會를지난十八日에開하라다가無條件으로當局의禁止를當하고以來여러가지로周旋한結果社會問題大講演會는去月二十九日夜八時부터同會館에서開하얏는바定刻이되자警官十數名이場內外를嚴重히警戒하는緊張裡에서朴衡秉氏「社會進化의史的考察」이라는題下에二時間동안意義깁흔印象을聽衆에게주고盛況裡에無事閉會하얏더라(群山)

寶城靑年會 水害救濟音樂
盛況으로마쳣다

寶城靑年會主催와東亞朝鮮兩支局의後援下에서水害救濟音樂演奏會를八月二十六日下午九時에靑年會館에서開催하얏는데悽慘한罹災民의情狀을同情함과同時에出演한人士中더욱히少年少女의奇特한心情을크게讚揚하며同情의눈물을흘니는마음으로大滿員을이루엇스며푸로크람의進行을따라變하는曲目의媚妙한旋律은場內를恍惚케하엿는바特히文長在昇次解兩孃의『엄마업는어린羊』이라는表情遊戲와林玉珍金孃의『夏暮의舞蹈』이란名唱은滿場의人氣를끌엇스며一同感激의唱歌로盛況裡에同十一時에閉會하얏는데當夜의義捐金은左와如하더라

朝鮮日報支局二圓 李容根一圓 無名氏一圓 李世民女史一圓 金善愛母親五十錢 王[illegible]母親五十錢 林개동母親一圓 金正根一圓 張泰琪二圓 朴泰玉母親二圓 李鍾八一圓 安圭穆一圓

楊平水災에 京城人士의篤志

楊平郡楊西面大心里의一部落되는上心里에도去番水災의被害된家屋으로流失이四戶破壞十戶浸水十三戶인데救濟에對하야同里居住金仁培氏의誠心으로周旋한結果左記京城人士로부터熱情의同情金과物品의義付가잇섯다는데救護를밧는人士는勿論이고楊平一般社會에서는諸氏의特別한篤志를稱頌한다더라

京城南門外敎會十圓 勝洞敎會十圓 勝洞婦人會衣服十件 安國洞敎會十五圓 鳳翼洞敎會十圓衣服三十件 蓮洞敎會五圓 金一善一百圓 金炳贊五圓 安大善五圓 張志暎二圓 洪明基一圓 西洋婦人양[illegible]三圓 (楊平)

長淵에서 救災會組織
七團體의發起로

黃海道長淵郡長淵面內에잇는一般靑年會、與風會、勉勤靑年會、天主敎靑年會、東亞、時代、朝鮮日報支局等七團體가合同하야罹災救濟會를組織하고去八月二十七日夜에耶蘇敎會堂庭內에서素人劇을行하얏는데同情의熱誠을품고入場하는者가不可勝數로一時大混雜을成하는中에自然히人山人海가되엿고同情金도多數하얏더라(長淵)

牙山水救會에
同情金遝至

本報牙山支局에서는其間水害救濟金을募集하든中忠南北記者大會發起에多忙中臨時停止하엿던바去月二十五日大會發起事務를終了하고救濟金募集及分配에勞力한다는데一般有志는多少를不拘하고贊同하기를바란다며이미드러온것도적지아니하다더라(牙山)

機張에서 救濟金募集
不得已道廳에送付

慶南機張에서는지난八月初旬以來로機張正進靑年會와機張面事務所의發起로今番全朝鮮을通한大水害의慘禍에서呻吟하는同胞들에게萬一의도음을주기爲하야不少한勢力으로同情金을募集하야京城에잇는朝鮮饑饉救濟會로보내려하얏든바今番事務局方針이京城에잇는水害救濟會와連絡이업는同情金募集或은分配를絶對不許함으로己往募集된金額一百七圓四十錢을不得已東萊郡廳經由로八月二十七日附南道廳에보내게되얏는데同情한諸氏의氏名은如左하더라

金德裕四十圓 侍郎里中七圓 崔基洪五圓 鄭奭朝 大邊靑年會 吳炳根各三圓 崔允澤 李圭完 李宰權 吳庚元 機張女子靑年會 金泳鳳 二圓式 權享準 金村海 金村益 金柔久 李鍾鐘 宋萬龍 金竹初 機張正進靑年會 權商重各 淑 金德洪 金貞順 吳元根 金秉洙 金柔蓉 張命鳳 李璟洪 朴容寬 姜虎一 宋成賢 金德浩 張秉榮 林科軟 金科哲 金潤壽 權河準各一圓式 新川里中一圓二十錢 金振俟六十錢 李壽命 吳次淑 辛栢年 金祥一 朴敬相 吳昌旭各五十錢 錢式張士元 金宥圭 金性魯 中敬植谷四十錢式 吳贊順 李今順 吳歆淑 金成德各二十錢(機張)

安城幼稚園 後援會
有志發起로創立

既報=安城幼稚園後援會는豫定대로去月二十九日午後四時頃에西里禮拜堂內에서徐相準氏司會로開催하엿는데同幼稚園에金品義捐한人士와學父兄을會員으로認定하고會費에對하야는年三圓으로定하엿스며當日選擧된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徐相準 副會長朴弼秉 書記睦項相 會計睦源鳳 安鍾淳 評議員兪鎭奐 韓圭昌 外十九人(安城)

『革潮』發刊延期
十二月에發刊할터

大邱에서創立된月刊雜誌『革潮』는當初九月一日에創刊號를내기로하얏든바여러가지準備關係로因하야오는十二月로延期하얏다고(大邱)

義州公普學藝會

義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學藝會를來九月十二日에本校에서開催하는同時에兒童의作品展覽도잇스리라는데學父兄은勿論이고一般人士의多數參觀하기를바란다더라(義州)

甘浦勞共總會

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에甘浦勞働共濟會第十回定期總會를新築會館內에서開催하고會長趙泰昊氏의司會로財政報告가잇슨後여러가지討議가잇섯나니勞働夜學校를設立하기爲하야舊七月二十三日에會館落成式兼夜學校起工式을擧行하기로決定하고閉會하엿더라(浦項)

道路改修費로 江界市民大會
工事費一萬四千圓支出을 道當局에歎願하기로決定

今番水害로因하야江界地方에도農作物其他의被害가不少하다함과安滿道路도多數破壞되여交通이不便하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이에對하야江界郡廳에서는安滿道路改修工事費一萬四千圓을道廳에地方費로支出하야달라고請하얏는데道當局에서는何等의回答이업슴으로地方人民側에서는去月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江界에서市民大會를開하고特派員三人을選擧하야道廳에派遣하야前記一萬四千圓의道路改修工事費支出을歎願키로決定한後同五時에閉會하엿는데被選된委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江界)

阿野或者 足立長吉 劉基貞

中坪文藝素人劇

慶北靑松郡巴川面中坪俱樂部主催로文藝素人劇을組織하야團長申壽九氏의引率下에郡內各面을巡回할터이며興行할藝題는

一、家庭劇 사랑의눈물
一、뜨거운눈물(靑松)

成川平壤間 郵便取扱怠慢
一般의不平沸騰

平壤과成川사이의郵便物取扱이넘우도怠慢하야一般의不平과非難이만타함은屢報한바어니와遞信當局에서는그후에도이에對한何等의對策을講究치아니하야이즈음에와서는郵便物의延着이一層甚하야新聞가튼것도每日그날그날의것이到着하여야될것이이틀혹은사흘식이나延着하는일이만하야一般不平이沸騰한바遞信局의辯明이란것을드러보면郵便物은自働車에실는重量이一定하야그關係로自然그러케되는일이만타하는것이다郵便物을

取扱하는 自働車가

每日定期로한번식通行하는外에隔日或은三日만에郵便物을取扱하는貨物自働車가잇슴에도不拘하고이와가티郵便物을延着식히고甚하면郵便物을馬車便에시러더늣게取扱함으로이苦痛과不平을참다못하야一般은遞信當局者에對하야非難이藉藉하다더라(成川)

善山靑年委員會

慶北善山靑年會에서는八月三十一日에同會館內에서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에對한討議가잇스리라더라

一、月捐金徵收의件
一、演藝收支報告의件
一、其他重要事項(善山)

落成式에 示威行列
豐山小作會

會館을建築하고

慶北安東郡豐山小作會에서는五千餘名會員의努力한結果로郊洞에會館을建築하고落成式을擧行한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豫定과가티지난二十八日下午二時半부터新築會館에서盛大한祝賀式을行하엿는데定刻前부터모혀드는群衆은붉은글자로各各洞里勞農旗와樂隊를先頭로數千群衆은물미드시모혀드더라

場內場外 는立錐의餘地가업시되엿는바定刻이되자同會常務執行委員李準熙氏의熱烈한式辭가잇슨後李會升、權五卨、李準憲諸氏의感慨無量한感想談이잇슨후來賓祝辭에이르러멀리永川에서온永陽靑年會代表白基浩永川衡平分社卞聖道、安東靑年聯盟金雨田、吉安靑年會柳淵建火星會金完鎭、禮安靑年會李準文、衡平社慶北第二支社金道天等諸氏의意味깁흔祝辭와遠近各團體에서온祝電祝文四十餘通을朗讀한後

萬歲三唱 으로無事히式을마치고卽時宴會席에나아가서各洞里農民의年中行事인草宴祭를배풀고興味가津津한後赤色旗와樂隊를先頭로數千群衆은市街를도라다니며示威行列이잇섯는데同夜十時頃에空前의盛況裡에萬歲聲裡에閉會하엿다더라(安東)

聯合懇親會

全南順天留學生會와順天普校卒業生同窓會의聯合으로去月二十六日午後二時에順天吉祥寺에서懇親會를開催하엿는데朴永鍵氏의開會辭와玉璿珍氏의歡迎辭와[illegible]文基氏의答辭와[illegible]淳悅氏의祝辭와吳在省氏의感想談이잇슨後餘興으로盛大한午餐會가잇슨後同六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順天)

長城郡北面 學校期成
面民大會에서對議 義捐도만타

長城郡北一面新興學前에서去二十五日午前十時에面民大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는데卽席에서百餘圓의義捐金이드러왓다더라

一、面學校設置運動의件
一、新興高敞間道路의件
一、新興市場擴張의件(長城)

四街自動車開通

湖南線四街驛前東方自動車는潭陽線을通行하든바過般洪水로因하야交通이杜絶되엿던바今에道路修繕됨을따라서九月一日부터다시開通된다더라(長城)

柳川留學生奕樂會

延白郡柳川의在外留學生一同은今番夏休로歸省한바納涼을兼하야去月二十五日午後八時부터當地新興學校에서笑樂會를開催하엿는데一二部로난호와各部李延龍兩君의司會下에劉山成君의監督으로여러가지滋味잇고意味잇는出演으로五百餘衆의喝采를밧앗다더라(白川)

倣義學校에 曙光!
同情金遝至

今般中和長老敎會에서는金益斗牧師를請聘하야一週間査經會를開催한바此機會를利用하야中和私立倣義學校의經營運動을公開하니一般有志로부터同情金이如左히드러왓다더라

金斗贊五百圓 林孝俊二百圓 金善旗一百五十圓 以下百圓 金致殷 金致龍 林景培 文應奎 金致奎 金泰禧以下六十圓 洪能福 萬龍麟以下五十圓 金孝根 吳錫燮以下三十圓 朴承煥 尹文涉以下二十圓 崔福祿 李永基 權元浩 李觀河 權仕仁以下十圓 兪利俊 朴周淑 金中烈 兪相允 李成鳳 孫永益 金斗鴻 崔致善 崔尙浩 徐正[illegible] 朴信[illegible] 李[illegible] 璉 李賢[illegible] [illegible]致[illegible] 朴永[illegible] 李萬根 [illegible]信 林一[illegible] 英杰 [illegible]以下五圓 金[illegible] 文[illegible] 徐興[illegible] 安[illegible] 在元 李恩[illegible] 李亨必 許[illegible] 李[illegible] 林在善 林在涉 永燮 李[illegible] 白基涉 朴 (以下略)(中和)

義州豫防注射
二日부터實施

義州警察署에서는九月二日부터三日間當地公會堂에서虎列刺豫防注射를實施한다는데醫師는道立義州醫院洞原醫員이出張할터이라하며그日割은다음과갓다더라

一、二日南門洞鄕校洞
二、三日西部洞蘊城洞東外洞
三、四日東部洞弘西洞(義州)

醴泉靑年의內幕公開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醴泉靑年會라하면곳치時局大同團을重繫으로歡迎하든靑年會이며또한今般醴泉衡平分社와新興靑年會를襲擊한事件에對하야無智한農民을會員大多數가煽動케한靑年會이다

◇大體內幕이엇더하기에種種이따위못난行動을敢行하야世上에容納지못할짓을하는가?內幕을좀열어보자會員의年齡은十七八歲로부터四五十歲外지인데會長의資格은納稅多額者라야되다제아모리高尙한人格과豐富한智識이有한者라도財産이업는無産階級이면會長노릇을할수업게된다

◇그리하야郡守兼長公普通學校長甚至於日本人의府民等이該會顧問이되야잇다또한所謂評議員이란것을보면鄕紳職員과商業家와其外에有數한財産者로만組織이되여잇고그미테幹事若干人만은地方靑年으로組織이되여잇스나엇지든規則을보면大小事勿論하고決議權은評議員에게만잇고幹事는評議員이決議한것을執行만할뿐이요何等의權利가업게되여잇다

◇大槪會의組織은이와갓거니와또한가지公開할것은今般醴泉衡平事件이突發하자會長金碩熙氏와總務鄭鍾鎭氏는突然히辭表를提出하엿다는데그內容을들은즉衡平社第二週年祝賀紀念式에서高貴한靑年會長으로서祝辭를하엿다고靑年會에서는緊急秘密會議를열고會長金碩熙氏에게引[illegible]實際[illegible]評委員外지選擧하엿다는[illegible]衡平社에入社[illegible]하엿다가卽總會에서[illegible]며이것을알[illegible]會長金碩熙氏도其실日에自進하야[illegible]實際[illegible]한것이라고한다

◇一部會員은今番衡平事件에對하야[illegible]白丁階級[illegible]衡平運動[illegible]的으로[illegible]新興靑年이미워서그와가티暴行을하엿다고하며大成功이나한드시意氣揚揚하게도라다닌다

◇그리하야醴泉의[illegible]에는靑年會員大部分이[illegible]와作作하야[illegible]보내고잇다[illegible]하기로新興靑年會와五五會員은社會運動者들이[illegible]여야한다고한다 이外에도[illegible]못할罪狀이잇지마는우선이것만公開하야둔다(反射鏡)

萬頃公普同窓會

全北金堤郡萬頃公普校同窓會는創立以來에會務가不振狀態에잇서有耶無耶中에파무친것을遺憾으로생각한一般會員은復興을圖謀하기爲하야지난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同校講堂內에서同窓會臨時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郭幸氏의司會下에任明淳氏의會則朗讀및左記事項을討議한後左記任員을選擧하고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가、會則을改正하야會務를一層革新할것
나、維持方針等一切事業을幹事에게一任할것
다、本校에十週年勤務한先生任明淳氏에게는紀念品을贈呈할것

◇任員 幹事郭幸鎬 郭愚烈 金允基 李英秉 郭鎬烱(金堤)

麻城面 學校工事
不遠着手

聞慶郡麻城面에서는敎育機關이업서恒常遺憾으로생각하야數年前에有志諸氏가學校期成會를組織하얏다함은旣報하얏거니와其間此期成會에서는一萬一千七百餘圓을積立하얏슬뿐아니라認可까지어더天幕基地는鼎里로定하고目下建築工事入札手續中이라는데곳工事에着手할터이라(尙州)

夏期와運動

烏沙庭球大會 全南光陽

光陽郡津月面烏沙里靑年會主催로去八月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烏沙里運動場에서庭球大會를開催하엿는데烏沙、東洞、蟾居、古田四隊軍이參加하야出戰한結果優勝은蟾居軍에도라갓다더라(光陽)

第二回少年蹴球爭覇戰

一、時日 九月六日
一、場所 普成商業學校球場
一、參加資格 身丈五尺一寸以內 選手十一人候補二人監督一人
一、參加金 四圓
一、申請期日 九月三日外지
一、申請場所 本社高陽支局

主催 孔德體育部
後援 本社高陽支局

楊平庭球延期
九月六日로

既報=本社楊平支局主催인抱川、楊州三郡聯合個人庭球大會는豫定과가티去月三十日에開催하려하얏스나降雨로因하야不得已九月六日(日曜)로延期한바參加選手는더욱申請하기를바란다는데去月二十九日外지의申請된團數는二十餘個團에達한다더라(楊平)

南鮮―板球大會
河東에서盛況

慶南河東에서는當地白虎團主催로南鮮板球大會를去月二十八九兩日間河東公普校運動場에서開催하엿는데來會外六個團體의選手入場式을마친後競技가始作되엿는대어린이의選手들은各其技能대로勇敢奮鬪하야一般觀衆으로하여금만흔興味를주엇스며翌日午後二時에決勝戰이잇서優勝旗授與式을擧行한後同二時半에閉會하엿다하며決勝戰勝敗는如左하다더라

▲決勝戰 飛虎軍 赤星軍
○金容式 ×徐基龍
○崔寧來 ×黃相燮
×鄭永洙 ◎尹致文
×張且鋼 ◎鄭祥錫
×李判鋼 ◎尹南陽
×張環 ◎鄭洪九
×金日錫 ○鄭萬五
×金容主 ○李正守 (河東)

苗浦에열린 南鮮蹴球大會
優勝은三進軍

全北苗浦庚申靑年會少年部三進團主催本社苗浦支局外二團體의後援으로開催된南鮮蹴球大會는豫定과如히去月廿五日午後에苗浦公普校코트에서會長尹達鎬氏의簡單한開會辭와審判長辛宰根氏의司會로競技를進行하야翌日下午四時에優勝旗授與式을終了한後無事散會하엿다더라(苗浦)

義州公普秋季運動

義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來九月下旬에統軍亭大廣場에서秋季運動會를開催코저方今準備中이라더라(義州)

◇寸鐵◇

【价川】順川風俗의事某라는者는一日에二人의娶을어덧다고한다 이比例로繼續하면一年에七百三十人◇

【忠州】郵便局員은近者老炎에부닥겨낫잠이甚한貌樣이다 例를擧하면時代報를朝鮮日報支局으로誤傳하기一日이안쓰기 電報送達紙에[illegible] 主義로군!局員一同氣勢! 末番不電送◇

【海州】海州警察署內某氏在所警官은私服을입고講演會에와다가中止를命하엿스나듯지안흠으로도리어正服을입고와서야정말中止를식혓다고 처음에는試驗을한셈인가?

思想運動

七八月合大號押收・九月號出來!(定價三十錢)

恨의九月
時評 (朝鮮饑饉及水災와三國無產階級團體의結社『朝鮮勞働』誕生 日本無產階級의政治舞臺出征準備)
國際靑年데이
少부르조아思想과 無產階級思想(完)
露西亞革命과農民
西洋社會思想史一瞥
無產階級運動의實際的方面
兒童의王國
露西亞教育方針
資本主義社會의解剖
共產主義와宗教
쇄타ー綱領批判

思想運動社出版部 판플렛第一輯『靑年에訴함』出來!

東京府下[illegible] 思想運動社

綿糸布商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三
㊀興一社
電話光化門二一三○ 振替京城一四三○九 電略 ケイセサフイオン

물감

獨乙純元料染料大廉賣
●洋襪染色用及其他一般染色用
●染料配合製造用及附屬品一切
京城府鍾路三丁目二十二番地
獨逸國馬獅子染料會社朝鮮總代理店
合資會社 福壽洋行京城出張所
電話光化門二五九番 振替口座京城九○番

小資本으로致富術
無料貸付蓄音器

平生大計에 職業을求하는 분來하시오

商品은極上의實質的材料를가져야만買者賣者가安心될니다本商會에서販賣하는四十餘種의効力이廣大한製造賣藥品은服藥家의確信愛用하는바로全朝鮮內의販賣店이旺盛하고多利함도此를證明하는바외다賣子의需要에轉하랴如한求職際을調和키爲하야本商會規則과如히請賣나行商을要코자하는이에게는藥價의實價六十圓어치를先金注文하시면特別優待로西洋유성기(蓄音機)一臺와兩面蓄音板五枚를無料로貸付하오니賣上이크利益이되오며賣藥業의助長이될지니至急申込하시오

(但今番에蓄音機二百臺를購入하야申込次第로提供하오니滿員되기前에申込金拾圓을本商會振替口座로付送하시옵소서詳細는規則을請求하시오)

蔘茸唐草材直輸入都賣散賣
京城府授恩洞參拾貳番地
朝鮮商會
長電話光化門一七八五番 振替口座京城一○三八六番